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지역정체성 형성의 관점에서 본
제주신화 축제 연구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自然·文化遺産教育學科

金 眞 娥

2019年 6月

碩士學位論文

지역정체성 형성의 관점에서 본
제주신화 축제 연구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自然·文化遺産教育學科

金 眞 娥

2019 年 6 月

지역정체성 형성의 관점에서 본 제주신화 축제 연구

指導教授 金 恩 石

金 眞 娥

이 논문을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김진아의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19 年 6 月

Jeju Myth Festivals from the perspective of regional identity formations

Jin-A Kim

(Supervised by professor Eun-suk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Education [Master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Education]

2019. 6.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Thesis director, Eun-suk Kim, Prof.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Education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국문초록】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1
제 2 절 연구 동향 검토	8
1. 정체성 연구의 시작과 동향	8
2. 제주 지역정체성 담론과 연구 동향	8
3. 제주 지역축제 연구 동향	10
제 3 절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1
1. 연구 대상	11
2. 연구 방법과 범위	12
 제 2 장 분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	15
제 1 절 정체성의 개념과 분석 기준	15
1. 정체성의 개념	15
2. 정체성의 분석 기준	16
1) ‘주체성’의 의미와 적용 범위	17
2) ‘진정성’의 의미와 적용 범위	17
제 2 절 신화의 개념과 특성	19
1. 신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20
2. 다양한 가능성의 신화 콘텐츠	22
제 3 절 축제와 정체성	23
1. 축제의 기원과 의미	23
2. 정체성 형성의 장으로써의 축제	24
3. 축제의 발전 과정과 현황, 그리고 과제	25

제 3 장	지역유산으로서의 제주신화	27
제 1 절	문화유산으로서의 제주신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27
1.	제주신화의 분류	28
2.	제주신화의 특성	29
제 2 절	‘독자성’과 ‘통합성’이 공존하는 제주신화	32
제 3 절	제주신화와 문화콘텐츠	35
1.	제주신화 콘텐츠 개발 부진의 이유	35
2.	제주신화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현황과 발전 가능성	36
제 4 절	축제 현장을 통해 전승되는 제주신화	37
1.	<설문대할망페스티벌>과 관련 신화	37
2.	<송당마불림제>와 관련 신화	40
3.	<온평혼인지축제>와 관련 신화	45
제 4 장	정체성 형성의 관점에서 본 제주신화 축제	50
제 1 절	제주신화 축제의 현황과 의미	50
제 2 절	연구 대상 축제의 분석과 결과	53
1.	<설문대할망페스티벌>	53
2.	<송당마불림제>	69
3.	<온평혼인지축제>	76
4.	결과 분석	84
제 5 장	결론 및 제언	86
참고문헌		89
Abstract		94

표 목차

<표 1> 최근 10년간 제주도의 인구 변화	3
<표 2> 기사 제목을 통해 본 제주의 인구 증가와 지역 사회의 변화	4
<표 3> 제주 큰곳의 구조적 원형 분석표	31
<표 4> 탐라개국신화 중 혼인지 설화의 이(異)설 분류표	48
<표 5> 제주신화 관련 축제 현황(2018년 현재)	50
<표 6> 제주지역 10대 성씨 구성비(2015년 현재)	51
<표 7> 예능기부자 명단 및 감사글	54
<표 8> 2016년 제10회 설문대할망페스티벌 주요 프로그램 일정표	57
<표 9> 2017년 제11회 설문대할망페스티벌 주요 프로그램 일정표	59
<표 10> 2018년 제12회 설문대할망페스티벌 주요 프로그램 일정표	62
<표 11> 신화지 답사 프로그램 답사지(2016년)	68
<표 12> 2017년 송당마불림제 프로그램 일정표	73
<표 13> 2018년 송당마불림제 프로그램 일정표	74
<표 14> 2016년 제7회 혼인지축제 프로그램 일정표	79
<표 15> 2017년 제8회 혼인지축제 프로그램 일정표	80
<표 16> 2018년 제9회 혼인지축제 프로그램 일정표	82
<표 17> 제주신화 축제 연구 결과 분석표	84

그림 목차

(그림 1) <건포배은>	2
(그림 2) 설문대할망페스티벌 진행 장소	66
(그림 3) 실제 설문대할망 신화 관련 장소	67
(그림 4) 송당마불림제를 이해하기 쉽게 만든 홍보물	70
(사진 5) 송당마불림제에 전시된 거대 인형	71
(사진 6) 송당마불림제 프로그램 진행 장소	75
(사진 7) 온평혼인지축제 진행 장소	83

【국문초록】

지역정체성 형성의 관점에서 본 제주신화 축제 연구

김 진 아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자연·문화유산교육학전공

지도교수 김 은 석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제주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주신화 축제’가 지역정체성 형성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검증을 통해 ‘제주신화 축제’를 지역정체성 형성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제주도에서 신화는 주로 무속의 형태로 전승되었다. 그렇기에 무속의례의 장은 신화를 전승하는 축제의 현장이 되었다. 탐라왕국이 고려에 복속되고, 조선이라는 유교국가의 통치 아래 놓이면서 무속의례는 강한 탄압을 받았지만 살아남았다. 이후 산업화를 거치고 생활양식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무속의례의 비중이 줄어들었지만, 제주도의 신화는 지역민들의 삶에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재탄생되면서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도 주목 받는 스토리텔링 유산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 이유로 제주신화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다양한 요인 중 하나로 여전히 지역정체성 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지역정체성 담론은 정체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증가할수록 더욱 그 필요성이 증대된다. 대한민국 유일의 특별자치도이면서 국내 최고의 관광지인 제주도는 최근 인문과 자연 환경 등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변화의 원인으로서는 지역 자체가 가지는 개방성과 2010년부터 이어진 이주민의 급격한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의 빠른 변화는 발전에 대한 기대 못지않게 많은 갈등과 불안

감을 초래하였다. 제주도의 이런 상황은 정체성에 대한 위기감을 증가시켰고,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정체성 정립을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 제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정체성 형성의 관점에서 ‘제주신화 축제’가 문제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제주신화는 그 원형이 잘 살아있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재생산되면서 보편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지역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토박이와 이주민의 경계를 넘어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제주신화 축제’는 느슨하지만 안정적인 지역정체성의 틀을 형성하는 데 적합하다.

신화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 유산이며, 축제는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집단 활동이다. 다시 말해 신화가 가지는 보편성과 특수성은 개방성이 큰 문화공유 방식인 축제를 통해서 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정체성 형성의 방안으로 ‘제주신화 축제’를 제안하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축제들을 분석하였다. 축제가 지역정체성 형성을 위한 토대가 되려면 축제 자체의 정체성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18년 현재, 제주 지역에서 개최된 제주신화 축제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분석하였다.

우선 제주도청과 제주시청, 서귀포시청의 홈페이지와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축제들의 내용을 분석하였고, 축제의 안정성과 포괄성, 대표성을 고려하여 3개의 축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안정성은 2018년까지 3년 이상 개최되고 2019년에도 개최될 것이 확실한 것을, 포괄성은 지역적으로 제주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을 선택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대표성은 제주신화의 전승방식과 내용을 중심으로 창조신화, 개국신화, 무속신화를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각각 하나씩을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연구대상은 창조신화와 관련된 <설문대할망페스티벌>, 탐라개국신화와 관련된 <온평혼인지축제>, 무속신화와 관련된 <송당마불림제>이다.

축제의 정체성을 분석하기 위한 판단기준은 주체성과 진정성을 제시하였다. 주체성은 정체성 형성의 당사자인 지역민들이 능동적이고 자유로운 주체로서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이다. 진정성은 축제에서 진행되는 프

로그램의 내용과 축제 진행 장소들이 신화의 원형에 부합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이다.

연구의 과정은 문헌연구법과 참여관찰, 심층면접 등의 해석학적 방법을 통해 연구대상을 조사한 후 주체성과 진정성의 척도를 좋음, 보통, 나쁨의 세 구간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결과를 정리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연구대상들의 최근 3년간 행사 진행 내용과 상황 등을 조사한 결과 각각의 제주신화 축제들이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구성원들이 제주신화 축제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각각의 축제들은 지역유산인 제주신화를 전승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았다. 지역민들이 어우러지는 소통의 장으로써 느슨하지만 안정적인 정체성의 틀로 작동되는 축제가 있는가 하면, 사회 변화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제주신화의 원형을 면면히 이어가는 축제도 있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제주신화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 오히려 그 원형의 의미와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도 있으며, 예산집행의 불투명함이나 외부단체에 대한 의존성 문제도 존재하고 있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직 이런 문제 상황에 대해 정체성 형성의 주체인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진중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민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역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로 보아야 한다. 그들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축제 예산이나 프로그램의 다양화 문제 등이 얹혀있기도 하지만, ‘제주신화 축제’ 자체가 지역의 소중한 유산인 제주신화가 전승되는 하나의 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제주신화 축제’가 지역정체성 형성의 밑바탕이 되기 위해서는 축제를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민들이 함께 문제점들과 상황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그런 수고와 노력의 과정에 함께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축제의 현장에서 제주신화가 살아 숨 쉬고,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온전히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제어 : 지역정체성, 제주신화 축제, 주체성, 진정성

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제주의 지역정체성 형성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주신화 축제’를 제안하기 위해 실제 진행된 축제들을 조사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지역정체성은 크게 지역자체의 특성에 따른 것과 주민들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지역정체성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지역의 특성은 지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주민들의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이 지역의 특성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결국 지역 자체의 정체성과 지역 주민들의 정체성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은 엄격히 분리되는 개념은 아니다. 따라서 축제를 통해 형성되는 주민들의 지역정체성은 지역 자체가 가지는 특성에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지역민들이 공유하는 역사적인 기억과 신화는 지역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며,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공동체의 틀로 작용한다. 오랜 시간 동안 세대의 경계를 넘어 형성된 지역정체성이 강할수록 그 정체성을 바꾸려는 압력에 대한 저항은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1702년에 제주로 부임했던 이형상 목사의 사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독립적인 국가였던 ‘탐라’는 고려에 복속되고, 조선의 유교질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버리도록 강요받았다.¹⁾ 그러나 주민들은 중앙으로부터 강요받으며 타자화된 껍데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알맹이를 지키고자 노력했다. <탐라순력도>에 수록된 <건포배은>에는 유교 국가인 조선의 통치하에서 제

1) 탐라국은 1105년(숙종 10) 고려에 합병된 후, 고려의 지방행정구역 중 하나인 군(郡)에 속하게 되었다.

(그림 1) <건포배은>



출처 : 제주도청, (<http://www.jeju.go.kr>)

주섬 사람들의 삶에 중심이 되고 있던 신당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잘 드러나 있다.²⁾

이형상 목사는 제주도의 민간신앙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 그는 부임 후 제주의 신당 129개소와 사찰 5곳을 불 지르고 심방들을 모두 귀농시켰는데, 제주 사람들이 목사의 선정(善政)에 감동하여 스스로 신당과 사찰을 파괴하였다는 내용을 자신의 저서 『남환박물』에 기록하여 남겼다.³⁾

그러나 이형상의 기록과는 달리 당시 제주섬의 민중은 이런 조치를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그에 대한 근거는 이형상이 제주 심방의 입을 통해 깡패이자 살인마로 묘사되거나,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지역민들에게 전해져 오는 두 아들의 사망 이야기, 그가 떠난 이후에는 파괴된 신당들이 모두 복구되었다는 기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⁴⁾

당시 유교 이념의 정체성을 이식하려 했던 것에 위기감을 느꼈던 지역민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이어온 삶의 모습을 지켜내는 것으로 지역정체성을 드러낸 것이다. 최근 제주 사회에서 논의되는 정체성 담론 역시 위기의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지역정체성에 대한 위기감의 증대는 비단 제주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화와 지역화가 혼재하는 세방화 시대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지역정체성 강화를 주목하고 있다.


2) <탐라순력도>는 1702년 제주목사 이형상(李衡祥)이 화공 김남길(金南吉)을 시켜 제작한 기록화첩으로 1703년에 완성되었다. <건포배은>은 순력내용에 대한 기록이며 제주의 향품문무(鄕品文武) 관리들이 조정에 배례하고, 제주의 각 마을에 있던 신당(神堂)이 불타는 모습을 자세하게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3) 『남환박물』은 1702년 3월부터 1703년 6월까지 제주목사를 지낸 이형상이 1704년에 저술한 제주도 인문지리지이다.

4) 이영권(2018), 『새로 쓰는 제주사』, 휴머니스트, 255.

프리드먼(2009)은 현대 사회의 변화 양상과 관련하여 세계체제의 파편화와 문화정체성의 형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가정체성이 약해지고 새로운 정체성이 출현하는 현상을 세계체제 체계모니상의 거대한 변화 조짐에 관한 문제로 풀어냈다.⁵⁾ 이는 세계적으로 국가와 민족에 기댄 정체성의 틀이 흔들리고 변화하면서 각기 다양한 정체성의 틀을 새로이 만들어가는 혼란과 변혁의 시대를 맞이하였음을 의미한다.

제주도의 경우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이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독립성을 한층 더 보장받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부동산투자이민제와 무사증 제도,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 등으로 국외 인구의 유입이 활발해졌다. 두 제도를 통해 제주도내 외국인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였고,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난개발과 지가상승, 환경훼손 등이 지적되었다. 생산 현장에서는 핵심인력으로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⁶⁾ 이는 2010년 이후 진행된 급격한 이주민의 증가와 맞물려 제주의 자연환경과 인문·사회적 환경 모두를 바꾸어 놓기에 이르렀다.⁷⁾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표 1> 최근 10년간 제주도의 인구 변화

구 분	인 구			전 년 대 비						
	합계	한국인	외국인	증 감			증 감 률			
				합계	한국인	외국인	합계	한국인	외국인	전국
2009	567,913	562,663	5,250	2,393	2,045	349	0.4	0.4	7.1	
2010	577,187	571,255	5,932	9,274	8,592	682	1.6	1.5	13.0	
2011	583,284	576,156	7,128	6,097	4,901	1,196	1.1	0.9	20.2	
2012	592,449	583,713	8,736	9,165	7,557	1,608	1.6	1.3	22.6	
2013	604,670	593,806	10,864	12,221	10,093	2,128	2.1	1.7	24.4	0.5
2014	621,550	607,346	14,204	16,880	13,540	3,340	2.8	2.3	30.7	0.6
2015	641,355	624,395	16,960	19,805	17,049	2,756	3.2	2.8	19.4	0.5
2016	661,190	641,597	19,593	19,835	17,202	2,633	3.1	2.8	15.5	0.4
2017	678,772	657,083	21,689	17,582	15,486	2,096	2.7	2.4	10.7	0.2
2018	692,032	667,191	24,841	13,260	10,108	3,152	2.0	1.5	14.5	

출처 : 제주도청(<http://www.jeju.go.kr>)을 연구자가 재구성

5) 조나단 프리드먼(2009), 『지구화 시대의 문화 정체성』, 당대, 159.

6) 경향신문 2019년 3월 21일자, “외국인정책 이대로 좋은가”, (<http://www.khan.co.kr>)

7) 2009년까지 제주의 인구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그러나 2010년부터는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며, 2017년에는 인구증가율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의 결과가 제주의 자연과 사회적 역량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제주 지역 자체에서부터 지역정체성에 대한 우려 또한 증가하게 되었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정체성 찾기에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제주 정체성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정체성 찾기에 나섰고, 박물관, 도서관, 행정 기관에서 진행하는 시민아카데미 등의 강좌에서도 제주의 지역정체성을 찾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2016년 원희룡 제주지사는 1998년과 2001년 개최되었다가 중단된 <제주세계섬문화축제>를 부활시켜 섬 고유의 문화를 브랜드화하고, 제주인의 정신과 제주문화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을 발표한 바 있다.⁸⁾ 제주도정의 정책 취지에서도 드러나듯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역정체성 찾기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보다는 지역 역사에 대한 인식, 지역 경쟁력 찾기, 우리 지역만의 색깔 찾기 등의 필요성에 기반하고 있다.

반면 민간 영역에서는 주로 현재의 제주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바탕으로 정체성 담론이 전개되었다. 제주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현재의 개발과 변화의 바람이 제주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으며,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다. 여기에 더해 급격히 늘어난 이주민들과 토박이들의 갈등 상황은 제주의 지역정체성 찾기에 어려움을 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상황들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표 2〉 기사 제목을 통해 본 제주의 인구 증가와 지역 사회의 변화

보도일자	기사 제목
2012.10.23.	이젠 '말은 서울로, 사람은 제주로' 보낸다 (제주의 소리)
2013.01.11.	갈등만 양산 제주역량 결집 실패[기획=제주사회 이래도 되나] (제민일보)
2016.10.25.	제주 토박이 vs 이주민, 가치관 차이 크다 (제주일보)

8) 한국일보 2016년 8월 22일자, “제주 세계 섬 문화축제 17년 만에 부활”, (<http://www.hankookilbo.com>)
- <제주세계섬문화축제>는 2018년 다시 개최하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루었다가 사실상 무산되었다.

2017.07.25.	제주 인구증가율, 전국서 가장 빠르다. 지난달 말 64만 8497명 2008년 대비 15.7% 증가 … 남자가 여자보다 많아 (제주일보)
2018.04.24.	지난해 제주 교통량 8.8%증가 ‘전국 최고’ (제주일보)
2018.12.20.	제주도민 절반, 이주열풍에 따른 인구유입 ‘부정적’ 평가 (국민일보)

자료 : 연구자 재구성

제주의 정체성 찾기 노력은 1970년대 후반부터 이미 존재하였다.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그에 따른 결과물들도 나왔다. 그러나 2018년 현재, 제주인들의 정체성 문제는 10여 년 전 정체성 논의의 구성원들과 달라졌다.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이주민들로 인해 구성원들의 구조가 변화한 것도 그 이유이지만, 사회 변화에 따라 제주 토박이들의 구조와 생활양식도 빠르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볼 때 제주의 지역정체성 찾기는 현재의 지역 구성원들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임이 분명해 보이며, 완결형이 아닌 진행형일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정체성(正體性, identity)’의 사전적 의미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로 정의된다.⁹⁾ 그러나 지역정체성과 같은 집단정체성은 사전적 의미의 본질주의적인 정의와는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최근의 정체성에 대한 학문적 정의는 변동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정체성의 주체인 개인과 집단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는 기술의 발달, 사회구조와 자연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변화의 과정 속에서 개인은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 집단정체성을 형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정체성을 정의할 때 변화하지 않는 고정된 것으로 인식하고, 본질주의에 기대어 의미를 찾으려 한다면 결과적으로 타당성을 인정받기 힘들 것이다. 나아가 잘못된 정의를 적용하여 지역정체성을 정립하고자 한다면 현재 제주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정체성의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이는 현재의 구성원들이 함께 기념하거나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면 지역 정체성의 한 축이 되는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 가는데 분

9)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2019년 3월 21일, 검색어 ‘정체성’.

명한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체성에 대한 접근은 변화의 방향과 속도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현대 사회에 발맞추어 다층적·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대사회의 복잡성은 정체성의 개념이 단일한 속성에 의해 정의될 수 없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구성원들의 다양한 정체성들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그릇으로 ‘제주신화 축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화(神話, myth)’는 인류 역사의 보편성과 지역의 자연·문화적 특수성을 시원적 상상력으로 엮어낸 문화유산이다. 축제를 비롯한 문화콘텐츠를 통해 현재성을 가미함으로써 그 시원성은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존재하게 된다. 지역의 신화와 축제를 연결 짓는 것은 지역 공동체를 결집시키고, 나아가 구성원들이 면면히 이어온 사유방식과 문화유산을 전승해가는 것을 돕는다는 점에서 지역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준다.

이는 신화가 보편적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고, 역사적 질곡을 함께 경험하지 않은 구성원들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신화는 가장 먼 과거이면서 다양한 소재와 형식으로 끊임없이 현재하고 있으며, 미래 사회로 나아갈 가치의 원천으로서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선다. 그런 이유로 세대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에 더욱 매력적이다.

‘축제(祝祭, festival)’는 이전부터 의례와 놀이 등의 형식으로 이어져 왔다. 사전적 의미는 ‘축하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로 정의되는데¹⁰⁾, 최근에는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확장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되는 문화공유 방식이다. 최근 들어 신화를 모티브로 하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들이 생겨나면서 제주의 신화가 주목받고 있다. 이런 흐름과 맞물려 제주신화를 축제의 형식으로 풀어내려는 움직임 또한 증가하고 있다. 무속의례를 중심으로 전승되던 제주신화가 축제의 현장에서 다양한 작품으로 공연되고, 신화 캐릭터를 활용한 작품 등을 만들어 내거나 음악, 무용 등의 예술 활동으로 연결시키는 사례들도 늘고 있다.

추미경(2003)에 의하면 사실 축제를 통한 정체성 확립 시도는 이미 서유럽이나 미주지역에서 1980년대에 적극적으로 시도했다가 실패한 정책이다. 당시 유럽의 각 도시들은 가속화되는 세계화 경향과 지역·도시 간의 경쟁을 의식하면서 ‘이미

1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2019년 3월 21일, 검색어 ‘축제’.

지 향상'과 '정체성 확립'에 초점을 둔 문화정책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결과적으로 실패한 문화전략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실패의 이유로는 축제가 지역 내의 실질적 문화 활동 활성화보다 외형적 문화시설 및 전시성 문화 행사의 확장으로 귀결되었고, 이로 인해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였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¹¹⁾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축제들이 이와 같은 우를 범하며 차별화된 전략이 부재한 상태로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축제가 질적인 제고 없이 가시적인 성과와 양적 확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여기에 더해 정치인들은 기업 옹호 등을 통한 지역 활성화 의도를 축제를 통해 실현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 결과,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 사회를 유지하고 통합하는 문화적 측면의 역할은 약화되고 있다.¹²⁾

그럼에도 연구자는 제주신화를 통해 지역정체성을 살려내는 주춧돌로 축제는 형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지역신화와 관련된 축제는 정체성을 갖춘 지역민들에게 자신들이 살아가는 터전을 온전히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하며, 이는 일반적인 축제 이상의 의미를 갖게 한다. 지역신화에는 해당 지역이 갖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적인 특성이 녹아 있고, 그 곳에서 삶을 일구어 온 구성원들의 사고 체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주신화에 녹아있는 지역민들의 삶과 정체성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제주신화 축제들이 나름의 정체성을 잘 확립해 가고 있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주신화 축제의 현장을 조사하면서 정체성 형성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갖는지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제주인들이 함께 형성해 나아갈 정체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제주신화 축제들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도 살펴볼 것이다. 장점은 그대로 살려둬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살피고 잘 건어내야 축제 본연의 의미를 살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11) 추미경(2003), 「지역축제와 문화정체성 확립, 축제의 차별화와 활성화?」, 『기전문화예술』 3·4월호. 경기문화재단, 63-66.

12) Lee Seung-chal(2016), *The Role of the Festival to Overcome the Regional Identity CRISIS in Republic of KOREA : Centering on Andong International Mask Dance Festival*, International Journal of crisis & safety, J-INSTITUTE, 9.

제 2 절 연구 동향 검토

1. 정체성 연구의 시작과 동향

학문적 영역에서 정체성 담론은 1950년대 후반을 시작으로 하여 1960년대에 본격화되었다. Erikson(1968)은 당시 대표적인 연구자이며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적 논의들을 발판삼아 연구를 발전시킨 결과 ‘정체성 위기’라는 용어를 대중화시켰다.¹³⁾ 정체성은 원래 정신분석학에서 가져온 개념이었지만 곧 민족이나 사회학 분야에 연결되어 연구되었다.¹⁴⁾ 1968년 출판된 국제사회과학백과사전에는 정체성이란 단어가 심리학적 용어와 정치학적 용어로 비중 있게 수록되었다. 1930년에 출판된 백과사전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내용이라는 점을 통해 정체성에 대한 논의나 연구가 심리학과 정치학 등의 분야에서 거의 비슷한 속도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¹⁵⁾ 최근에는 다양한 문화 현상과 맞물려 문화사회학 분야에서 보다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2. 제주 지역정체성 담론과 연구 동향

1) 제주 지역정체성 담론의 형성

제주사회에서 정체성 논의는 1970년대 후반에 본격화되었다.¹⁶⁾ 이는 제주도의 본격적인 개발과 지역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1971년 ‘제1차 국토 종합개발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제주도 종합개발 10개년 계획’

13) ‘정체성 위기’는 정체성의식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겪는 불안이라 할 수 있는데, Erikson에 의하면 정체성의 위기는 자기인식에 대한 연속성과 동질성을 확립하고 여러 관점에서 자아에 대한 평가들이 통합되면서 자신의 독특성을 확립할 때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 위기 과정을 통하여 자아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고 한다.

14) Rogers Brubaker and Frederick Cooper(2000), *Beyond "identity"*, Theory and Society, 29, Kluwer Academic Publishers. 2-3.

15) Philip Gleason(1983), *Identifying Identity: A Semantic History*, Journal of American History 69-(4), Oxford University Press, 910.

16) 최병길·권귀숙·강상덕·김현돈·한석지·박찬식(1998), 「제주섬 정체성 변화에 관한 비교 연구」, 『제주도연구』 15, 제주도연구회, 115.

이 수립되었다. 1973년 정부는 제주도관광종합계획을 확정해 3대 개발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10년간 5073억 원을 투자하는 관광기반시설 확충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개발 계획과 추진 결과는 제주도의 향토성과 자연경관을 고려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주다움을 훼손하였다.¹⁷⁾ 지역의 특성이 훼손되는 변화가 인적 구성의 변화, 시대적 변화의 양상들과 맞물리게 되는 경우 지역정체성에 대한 위기감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위기감의 증가는 지역정체성 담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토 종합개발 계획의 틀 안에서 추진되었던 제주도의 개발 결과가 현재의 상황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정체성 위기와 사회적 담론을 1970년대의 연속선상에서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

2) 제주 지역정체성 연구 동향

제주의 지역정체성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접근한 연구, 지역민의 생활 저변에 자리한 의식과 생활태도를 중심으로 접근한 연구, 지역적·혈연적 특성에 대한 도민들의 태도와 생활양식에 초점을 맞춘 조사 연구 등이 있다.

독립 국가였던 탐라는 고려에 복속되고,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를 지나오면서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경험하였다. 그 소용돌이 속에 있던 제주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제주인의 정체성 형성을 연구한 것은 전경수(1992), 최병길 외(1998), 김은석(2012) 등의 연구물이 있다. 최근에는 4·3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현재의 지역정체성을 이와 연결하여 해석하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4·3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박찬식(2010)은 4·3사건을 통해 내재화된 지역주민들의 국가공권력에 대한 인식과 사회심리적인 상태를 설명하고, 1960년 4월 혁명을 통해 지역적 콤플렉스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서술하였다. 허남춘(2013)은 제주가 4·3의 고통을 이기고 진정한 ‘세계 평화의 섬’이 될 때, 화해와 상생의 정신이 ‘제주 정체성의 원리’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지역민의 생활 저변에 자리한 의식에 대한 연구로는 ‘제주 정신’의 실체를 규명하는 연구가 있다. 그 결과물로는 제주를 ‘삼무’, ‘삼다’, ‘삼보’의 섬이라 정의하

17) 강영조(1997), 「제주관광종합개발계획(1973)의 경관설계 사상과 실행」, 『농업생명자원연구』 6-(1), 동아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부설 농업자원연구소, 80-86.

고, 제주인들이 창출해 낸 ‘제주 정신’으로 ‘즈남 정신’, ‘분깃 정신’, ‘수놓음 정신’ 등을 언급한 진성기(1962, 1966, 윤용택, 2014:828 재인용)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진성기 이후에 제주 정신의 맥락에서 나온 대표적인 연구 결과물은 송성대(1996)의 ‘해민 정신’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들은 주로 제주의 환경적 요인과 관련되어 형성된 생활 문화에 중심을 두고 진행되었다.

그러나 ‘제주 정신’이라는 개념을 통해 정체성을 찾아내려는 연구들에 대해 기층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점이 지적되었다. 조성윤(1998)은 ‘제주 정신’이 “제주인의 집단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세워 주로 교육기관을 통해 이루어졌을 뿐이며, 결과적으로 제주도민들에게는 별다른 호소력을 갖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정치권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계몽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들어 이를 현재의 제주정체성으로 연결 짓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¹⁸⁾ 이런 지적과 비판은 제주정체성 연구를 한 단계 더 끌어 올리고 학문의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도민들의 의식을 조사하여 추정해 보는 방식은 윤용택(2015)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 방식의 정체성 연구는 아직 결과물이 많지 않은데다, 최근 10년간 급격하게 인적 구조가 바뀐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표본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 외에 제주의 문화예술의 특성을 통해 정체성을 파악하려는 연구들도 있다(김운미·김윤지, 2012).

3. 제주 지역축제 연구 동향

제주 지역의 축제 연구는 2010년을 기준으로 연구의 대상과 범위가 확장되는 흐름을 보였다. 국내학술지논문을 검토한 결과 2010년까지는 연구대상이 3~4개의 축제에 맞춰져 있었는데, <세계섬문화축제>에 대한 연구물은 개최년도인 1998년과 2001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었다(고승익·박은아, 1998)(이중화, 1999)(김성준, 1998, 2001)(허향진·오상훈, 1999)(송성진, 1999).

<제주들불축제>(김재일, 2007)(이정진, 2007)(김의근·강숙영, 2010)와 <입춘

18) 강봉수(2018), 「제주정체성으로써 ‘제주정신’에 대한 연구 성과와 제주문화문법」, 『제주도연구』 50, 제주학회, 188-193.

곳>(한양명, 2003)(한진오, 2007, 2008), <최남단방어축제>(김의근·류웅걸, 2004)(김희철·김민철·부창산, 2007)(우기남·송성진, 2009)의 연구는 2005년 이후에 보다 활발해졌다.

<유채꽃축제>는 다수의 연구 결과물이 있지만 연구마다 조사지역이 달라 동일 대상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영등굿>의 경우 앞서 언급된 축제들보다 연구물이 많았으나 축제의 관점이 아닌 학문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외에 <왕벚꽃축제>, <서귀포칠십리축제>등에 대한 연구물도 있었지만 홍보 전략 중심이었고, 그 이상의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2007년, 이수자에 의해 제주신화 축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의 논문 「제주도 ‘송당(松堂)신화축제’의 의의와 계승의 필요성」은 제주신화 축제의 의미와 가치를 연구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으나 이후 관련 연구가 계속되지는 못하였다.

2010년 이후에는 음악축제, 고사리축제, 승마축제, 다양한 꽃 축제, 올레걷기축제, 해변축제 등으로 연구의 대상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주의 축제 연구는 대부분 관광 개발의 측면에서 방문자의 만족도와 재방문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주로 축제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관광 수요를 늘리기 위한 홍보 전략 등에 대한 연구물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최근에는 축제의 주제를 새로운 콘텐츠에 결합시키려는 경향을 보이면서 연구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안미화·장애란, 2015).

제 3 절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대상은 축제 기간의 안정성과 지역적 포괄성, 제주신화의 분류에 따른 대표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적용하여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모

두 충족하는 축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적용된 조건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8년까지 3년 이상 개최되고 2019년에도 개최될 것이 확실하여 지속성의 여부가 명확한 축제여야 한다. (안정성)

둘째, 제주 지역 전반에 관련된 신화 축제여야 한다. (포괄성)

셋째, 제주신화를 내용과 전승방식에 따라 창조신화, 개국신화, 무속신화로 분류하고, 각각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여야 한다. (대표성)

앞서 제시한 세 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축제는 <탐라입춘굿놀이>, <영등바람축제-영등제>, <설문대할망페스티벌>, <송당마불림제>, <온평혼인지축제>로 총 다섯 개였다. 이 중 창조신화와 관련된 축제는 <설문대할망페스티벌>이 유일하였고, 탐라개국신화와 관련된 축제는 <온평혼인지축제>가 유일하여 두 축제가 우선 선정되었다. 나머지 세 축제는 제주의 무속신화와 관련이 있는데, <송당리 마을제>의 4대 제의 중 하나인 <송당마불림제>의 경우 송당리가 제주도 대부분의 마을에서 무속의례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4대 당제를 지키고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에 더해 <송당마불림제>가 진행되는 ‘송당본향당’은 제주도 무속신화의 고향이라 할 수 있으며, 전통적으로 마을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구심점 역할을 하였던 곳이다. 마을 주민들을 통합하고 지역 사회를 운영하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주의 지역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제주신화가 갖는 보편성과 특수성이 밑바탕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실제적인 활동으로 묶어낼 수 있는 것이 제주도 내에서 행해지는 지역 축제이므로 연구 대상의 지역적 범위는 제주도로 제한하였다. 2018년에 제주도 내에서 진행된 제주신화 축제 중 연구자가 제시한 안정성과 포괄성, 대표성을 충족하는 제주신화 축제로 <설문대할망페스티벌>, <송당마불림

제>, <온평혼인지축제>가 선정되었다.

‘제주신화 축제’를 지역 정체성 형성의 방안 중 하나로 제안하기 위해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은 이론적 고찰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는 문헌연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관계자의 확인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층면접 형식의 질적 연구방법이 추가로 진행되었으나 연구대상들의 특성상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 간 비교의 관점이 아니라 해당 축제의 특성과 관련된 내용에만 적용하였다.

이 연구의 방법과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 사회의 언론보도 확인과 문헌연구를 통해 제주의 지역정체성 위기 상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사 검토에서 확인된 내용을 현재의 정체성 위기와 연결하여 해석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주신화 축제가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정체성, 신화, 축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였고, 세 개의 축제 각각에 대하여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참여관찰을 통해 확인했던 내용들은 문헌으로 다시 확인하였고, 추가적으로 현장조사가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축제 장소에 재방문하였다. 최종적으로 관계자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인터뷰를 실시하여 보완하였다.

조사된 내용은 문헌조사를 통해 제시한 정체성 판단의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각각의 축제들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여 향후 제주신화 축제가 지역 정체성 형성의 밑바탕이 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며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전체적인 흐름을 서술하였다. 지역정체성 연구가 필요한 문제 상황과 이 연구의 목적을 연결하여 설명하고,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연구대상, 연구의 범위와 방법 등을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연구대상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명확한 분석 기준을 도출할 것이다. 정체성의 개념과 분석 기준, 신화의 개념과 특성, 축제와 정체

성의 관계 등을 정리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지역유산으로서의 제주신화의 가치와 의미를 확인할 것이다. 제주신화의 분류 방법과 특성, 축제의 현장에서 전승되고 있는 대표적인 제주신화의 사례 등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점차 그 가치를 인정받고 주목받는 제주신화가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재생산되는 상황과 발전 가능성도 설명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연구대상인 세 개의 축제를 조사한 내용과 분석 결과를 서술할 것이다. 연구대상 각각이 어떠한 취지에서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징들은 무엇이었는지를 정체성 판단의 내용과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 결론과 제언을 통해 제주신화 축제가 지역정체성 형성의 밑바탕이 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주신화의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살리고, 지역공동체가 함께 이를 전승해가는 과정을 통해 지역정체성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음을 확인하며, 현재 제주신화 축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제주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제주신화 축제들의 장점과 단점, 축제 자체가 지니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아가 향후 제주신화를 전승하는 다양한 문화 활동들이 중심추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는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이에 대한 나름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장 분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정체성의 개념과 분석 기준

1. 정체성의 개념

일반적으로 정체성은 주체의 단위에 따라 개인 정체성, 집단 정체성으로 구분한다. 개인정체성은 주로 심리학 분야에서, 집단 정체성은 정치학과 사회학에서 주요하게 다루던 주제이다. 최근에는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에서 집단 정체성을 다루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체성의 주체가 그 영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곧 집단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각 학문 분야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라는 것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Erikson(1968)은 정체성의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 즉 개인 정체성과 집단 정체성이 상호 충족 및 보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였는데, 두 정체성의 상호보완이 개개인의 자아 통합력을 강하게 하고 사회조직의 발전을 이룩해 가며 쌍방에 활력을 불어넣음을 피력하였다. 따라서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학문 간의 경계를 넘어 간학문적인 연구와 통합적 연구에 의해 더욱 심층적이고 타당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박이문(1997)에 의하면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각기 무엇인가 고유한 속성이 있음을 전제하는데, 이는 자연적 존재의 경우 ‘본질’, 문화적 존재의 경우 ‘정체성(正體性, identity)’이라 불린다. 그는 정체성이 어떤 현상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실용적인 목적을 위하여 하나로 묶어 정리하기 위해 도구적으로 고안한 개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정체성’이라는 것이 명확한 실체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정체성의 개념이 무용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개념이 문화를 서술하고, 한 문화가 자신을 반성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데 극히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 인간의 정체성은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개발되고 변신했을 때만 의미가 있다.”¹⁹⁾는 그의 주장은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의 출발점이 자발성을 갖춘 주체성에 기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정체성은 일관되고 변함없는 본질적 특성을 의미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체성은 만들어지는 것, 항상 되어가는 과정 안에 있는 것, 그러나 완성되지 않는 것 등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정체성’ 개념 자체가 ‘정체성들’이라는 복수 개념으로 대체되고, 정체성이 다중적이고 유동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흐름 또한 강해졌다.²⁰⁾ Hall(1996) 역시 정체성을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되어가는 과정 안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선행연구들과 사회 변화 요소 등의 맥락을 고려할 때 정체성은 시간과 상황에 따라 나름의 형태와 특성을 드러내지만 그 내부는 유동적일 수 있고, 그 내부의 유동성은 다시 외부의 형태와 특성의 변화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2. 정체성의 분석 기준

이 연구에서는 제주신화 축제의 정체성을 판단하기 위한 분석 기준으로 주체성과 진정성을 제안하였다.²¹⁾ 주체성은 축제를 이끌어가는 구성원들에 대한 평가이고, 진정성은 축제 프로그램의 내용과 장소적 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진정성’이라는 개념은 세계유산 등재의 기준이기도 한데, 축제의 현장에서 펼쳐지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제주신화의 원형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장소적 진정성 역시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신화는 인간의 상상력에 기대어 생명력을 얻는 것이지만 그 상상력의 바탕은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시·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화와 관련된

19) 박이문(1997), 『문명의 미래와 생태학적 세계관』, 당대, 101.

20) 존 스토리 저, 유영민 역(2011), 『대중문화란 무엇인가』, 태학사, 130-131.

21) 탁석산(2000)은 『한국의 정체성』에서 정체성 판단의 기준으로 현재성, 대중성, 주체성을 제안하였다. 연구자는 이 제안이 정체성을 판단하기 위한 일반적 기준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제주신화 축제의 정체성을 분석하고자 그의 기준을 연구 목적에 맞게 재해석하였다. 그리고 세 가지 기준 외에 연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장소성과 진정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추가하여 재검토한 결과 제주신화 축제의 정체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으로 주체성과 진정성을 제시하였다.

장소적 의미를 축제에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가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에서 적용할 정체성 판단의 기준으로 ‘주체성’과 ‘진정성’을 제시하였고, ‘진정성’이라는 개념 안에 축제의 내용과 함께 장소성도 포함시켰다.

1) ‘주체성’의 의미와 적용 범위

‘주체성’은 자유롭고 능동적인 존재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해 가는 과정을 통해 확보될 수 있다. 지역민들은 축제의 의미를 공감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면서 주체성을 발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지역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체성’이라는 판단 기준은 지역정체성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지역정체성 형성의 관점에서 제주신화 축제들을 살펴보고, 해당 축제들이 지역정체성 형성에 밑바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의 특성상 참여 주체가 지역주민들이 아니거나 주민들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면 지역정체성 형성의 측면에서는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지역의 구분 없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면서 이를 통해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내집단 의식이 강해지고, 나아가 지역정체성 형성에 큰 틀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연구의 안정성을 위해 정해진 조건 안에서의 분석 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다. 다시 말해, 연구 결과 지역정체성 형성의 관점에서 해당 축제가 주체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평가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다른 측면에서 그 주체성이 높게 평가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내용이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되고 나아가 제주신화 축제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정체성을 정립해 가는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2) ‘진정성’의 의미와 적용 범위

연구자는 축제가 진행되는 장소적 특성과 축제 프로그램의 내용적 특성을 더해 ‘진정성’이라는 정체성의 분석 기준을 제시하였다. 축제 프로그램은 주최 측이

축제를 개최하는 취지는 물론이고 축제에 담아내고자 하는 철학을 잘 드러낸다. 따라서 축제의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그 내용이 신화의 원형에 얼마나 부합하느냐와 그 의미를 얼마나 잘 전달하고 있느냐를 통해 축제의 정체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장소적 진정성이 중요한 이유는 축제라는 문화 공유 방식이 일반적으로 일정한 공간을 필요로 하며 그 안에서 내용을 풀어내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정체성 판단에 있어 장소가 가지는 의미가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의 사례로 강릉단오제의 성공 요인 중 하나를 장소성에서 찾는 연구들이 있다. 강릉단오제는 강릉전체를 장소적 배경으로 하는데 이는 근원신화의 장소성에 부합하여 강릉 사람들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²²⁾

세계유산 등재 기준의 하나인 ‘진정성(authenticity)’은 사실에 부합한다는 의미로 ‘원본’이나 ‘진품’ 등의 단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제주신화가 지역유산으로서 갖는 의미와 가치를 전승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정체성이 제대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축제현장에서의 진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축제에서 ‘진정성’이란 축제로서의 존재 가치이며, 확실하고 근거가 있거나 믿을 만한 것 또는 참되고 바른 것을 의미한다.²³⁾ 그러나 진정성을 신화 관련 축제의 현장에 적용할 때 고정불변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기도 하다. 정체성이 나름의 틀과 형식을 갖춘 개념이더라도 동시에 현재진행형의 유동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진정성 역시 변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수정(2012)은 ‘진정성’이라는 용어가 우리말에는 없던 것인데, 문화재 보존에 ‘authenticity’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사용됨으로써 우리나라에 번역된 용어라고 주장하였다.²⁴⁾ ‘진정성’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던 것이 아니라는 그의 주장은 보다 구체적인 검증의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문화재 보존과 관련하여 문화유산에 ‘진정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적용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와 함께 “진정성은 시대적으로 변화하며, 문화

22) 이학주(2014), 「신화가 가지는 관광자원의 속성 연구-강릉단오제 근원신화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43,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42-43.

23) 이정학(2018), 『축제 이벤트』, 대왕사, 42.

24) 이수정(2012), 「문화재 보존에 있어서 진정성 개념의 속성과 변화 고찰」, 『문화재』 45-(4), 국립문화재연구소, 127.

적, 사회적 특성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진정성 개념을 정립하는 데 있어 이런 속성들을 고려해야 한다.”²⁵⁾는 그의 주장은 신화 축제의 현장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신화의 특성상 그 진정성을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오랜 시간 전승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이의 양상들을 모두 파악하기 힘들고, 그 중 어느 시점, 어느 공간에서의 결과물이 더 원형에 가깝다고 말하기 힘든 경우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신화 축제는 오랜 기간 지역민들에게 전해오는 이야기 유산을 기반으로 프로그램 구성하는 것이기에 최대한 해당 신화의 본질에 가깝고 믿을만한 것으로 내용을 채워가야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승과정에서의 변이와 그에 따른 진정성의 적용 범위에 유연함을 가하되 학문적으로 인정된 범위와 구비전승의 양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신화소를 기반으로 장소와 내용의 진정성을 검증하였다.

제 2 절 신화의 개념과 특성



‘신화(神話, myth)’의 사전적 의미는 우주의 기원, 초자연의 존재의 계보, 민족의 시원 등과 관련된 신에 대한 서사적 이야기로 정의된다.²⁶⁾ 의미상 신격을 대상으로 하는 설화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과 이분법적으로 분리되는 존재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신화는 그 대상이 인간적 특성을 지녔다 하더라도 신성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존재를 포함하는 이야기이다.

김화경(2003)은 신화를 “세계와 인간, 문화의 기원을 서술하는 것으로, 오늘날 존재하는 세계에 근거를 부여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모델을 제공하는 신성한 이야기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즉, 신화란 현존하는 사회나 제도의 근거를 제공하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그는 많은 신화들이 이미 존재하는 현상이나 질서에 그 근거

25) 이수정(2012), 위의 논문, 137.

2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19년 3월 21일, 검색어 ‘신화’.

를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을 강조하면서 지역의 중심 신화가 바뀌어 가는 과정을 지배 세력이 변화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²⁷⁾

신화를 분류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승 방식에 따라 글로 기록되어 전승되는 문헌신화와 구술로 전해지는 구전신화로 구분한다. 그러나 문헌신화라 하더라도 처음에는 대부분 구전신화였던 것이 어느 시점에 이르러 글로 기록되면서 문헌신화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특정 세력에 의해 처음부터 문헌신화로 기록된 것이라도 그 전승과정에서 상징적 언어로 표현되는 신화의 함축성에 의해 구전신화의 특성이 가미되거나 또 다른 구전신화로 재생산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글로 기록되어 전승되는 문헌신화와 구술의 방식으로 전승되는 구전신화는 그 형식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엄격히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화의 특성을 고려해 신화 연구는 문헌신화 연구, 구비 신화 연구와 함께 양자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도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²⁸⁾

1. 신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신화’는 인류의 보편적 문화유산이다. 세계 곳곳에 전승되어 온 신화는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면서도 전체적인 틀이나 발생 양상에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국내의 사례로는 함흥의 <창세가>와 제주도의 <초감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서로 다른 지역이지만 천지의 분리, 인간의 시원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다.²⁹⁾

일만 팔천 년을 살면서 하늘과 땅을 열었다는 중국 남방민족의 거대신 반고 신화와 한반도의 마고 신화, 제주도의 설문대 신화는 각기 그 전승과정에서 떨어져 있고 보태어진 내용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인간이 살아갈 공간을 열어주는 거대신에 대한 믿음을 확인시켜 준다.³⁰⁾

27) 김화경(2003), 『세계 신화 속의 여성들』, 도원미디어, 20-30.

28) 조현철(2003), 『동아시아 건국 신화의 역사와 논리』, 문학과 지성사, 15.

29) 서대석(2008), 「동북아시아 신화 속에서 본 한국신화의 정체성」, 『한국신화의 정체성을 밝힌다』, 지식산업사, 137.

30) 우주창조나 지형형성과 관련된 거인신화는 세계 곳곳에서 전승되고 있다.

제주 신화와 비슷한 신화들이 다른 국가에서 발견되는 사례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김현선(2017)은 신화가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 상황과 특성에 따라 동시 발생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는 신화의 동시 발생적 관점을 중국 소수민족 중 하나인 ‘이족’ 신화에 제주도의 <차사본풀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지고³¹⁾, ‘묘족’의 창세 신화인 <수탐이 하늘을 부르다> 역시 <차사본풀이>와 유사하다는 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³²⁾

이와 같은 관점은 <송당본향당본풀이>에 나오는 영웅의 일생과 거의 같은 내용이 아프리카 니앙가 민족의 <므원도>에도 있다는 점에서도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다.³³⁾

제주도의 <세경본풀이>와 함경남도의 <문굿>, 문굿의 모티브가 되었다는 중국의 <축영대 설화>의 사례도 눈여겨볼 만하다. 세 이야기는 유사점이 많아 제주의 자청비 이야기가 다른 지역에 영향을 받았음을 추측할 수 있는데,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³⁴⁾

- ① 여성이 남장하여 남성과 함께 글공부를 하러 간다.
- ② 여러 해 동안 한 방에 자며 공부를 하면서도 남자가 상대방이 여자임을 눈치 채지 못한다.
- ③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약혼처가 있다.
- ④ 남자가 상사병으로 죽는다.
- ⑤ 여자가 시집가는 날 남자의 무덤에 이르러 두 개로 갈라진 무덤 속으로 뛰어 들어간다.
- ⑥ 들어가는 치마를 잡아당기니 찢어진 조각이 나비가 된다. (제주에서는 파리, 모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변이가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음)

많은 신화학자들이 아직은 전파의 관점에서 신화의 유사성을 연구하고 있다. 신화가 다른 민족과의 문화접촉에 의해 전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수용한 주체

31) 김현선(2017), 『남방실크로드 신화여행』, 아시아, 30.

32) 김현선(2017), 위의 책, 120.

33) 조동일(2008), 「세계 속의 한국신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한국신화의 정체성을 밝힌다』, 지식산업사, 122.

34) 현용준(2005),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113.

들에 의해 변이되고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런 이유로 비슷한 맥락의 신화라 할지라도 그 지역만의 이야기 유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각기 다른 곳에서 유사한 신화가 발견되는 것이 전파에 의한 것이든, 동시 발생적인 것이든 우리는 이를 통해 신화가 인류보편의 문화유산이면서 지역민들의 삶이 녹아들어 재구성된 지역의 유산임을 발견해 낼 수 있다.

2. 다양한 가능성의 신화 콘텐츠

최근 그리스신화, 북유럽신화, 인도신화, 이집트신화의 경우 신화의 주인공들이 게임 속 캐릭터로 재탄생되어 세계 곳곳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스신화와 북유럽 신화 등은 이미 세계적인 규모의 영화나 드라마로도 제작되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과학의 시대가 왔다고 해서 신화를 미신으로 치부하는 것은 비과학적 사고방식이다. 신화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통해 원시과학이면서 첨단과학으로 얼마든지 재탄생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이를 제주신화에 접목시킬 수 있어야 한다.

신화 콘텐츠는 OSMU(One Source Multi-Use)산업에 매우 적합하다. 이미 첨단산업 분야에 세계의 신화들이 모티프로 사용되고 있다. 경쟁력을 갖춘 신화 콘텐츠들은 출판에서 시작해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 등으로 이어져 개발의 영역을 확장시킨다. 교육계에서는 캐릭터와 애니메이션을 결합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IT업계에서는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화 축제는 신화 콘텐츠의 실제적인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장으로써도 기능할 수 있다. 신화가 가지는 보편성과 특수성은 글로벌 문화 콘텐츠의 경쟁력을 충분히 확인시켜 줄 수 있으며, 그 확인의 장으로써 축제가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신화 축제의 현장이 단순히 잊혀져가는 의례를 재현하거나 신화 스토리텔링을 무분별하게 재연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신화의 원형에 부합하는 스토리텔링 구성과 신화적 상상력을 결합한 새로운 감각의

글로벌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제 3 절 축제와 정체성

1. 축제의 기원과 의미

그리스어로 축제는 ‘신에 대한 사랑의 증명’을, 축제 기간은 ‘신성한 시간’을 의미한다.³⁵⁾ 종교적 제의에서 시작된 축제는 점차 놀이의 기능이 더해지다가 현재는 놀이의 기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다시 말해, 축제는 그 기원을 종교적 제의에서 찾을 수 있으며, 정치와 종교의식의 산물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요한 하위징아(1938)는 『호모 루텐스 - 유희에서의 문화의 기원』에서 축제의 놀이기원설을 주장하였다. 인간이 하는 놀이의 가장 높은 형태는 언제나 축제와 의례의 영역, 즉 신성의 영역에 위치해 왔다는 것이다.³⁶⁾ 그러면서 축제와 놀이의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① 일상생활의 정리를 요구한다.
- ② 환희와 즐거움이 지배하지만, 축제 또한 진지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즐거움만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 ③ 시·공간적 제약이 있다.
- ④ 진정한 자유에다 엄격한 규칙을 가미한다.
- ⑤ 춤을 통하여 긴밀하게 연결된다.

이와 함께 카니발의 사례를 들어 축제를 ‘일상의 파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연구도 다수 있다(김기연, 2016)(김태연, 2018). 그러나 그 파괴성이 다시 일상의

35) 김영순·최민성 외(2006), 『축제와 문화콘텐츠』, 다홀미디어, 13.

36) 요한 하위징아 저·이종인 역(2018), 『호모루텐스』, 연암서가, 44.

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일반적이다. 일상의 파괴를 통해 오히려 정형화된 일상으로 돌아가는 힘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를 종교적·정치적인 맥락에서 접근하여 해석하기도 한다(박승규, 2010)(김태연, 2018).

의례적 의미이든 놀이의 의미이든,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구성원들은 많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킨다. 축제는 카니발의 사례처럼 금기의 파괴 현장이 되기도 하지만 다시 일상에서 구성원들의 내집단 의식을 강화하고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힘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2. 정체성 형성의 장으로써의 축제

문화는 개인의 자기인식과 정체성의 근원이다.³⁷⁾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공유하는 문화의 장은 지역정체성 형성의 근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축제는 지역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상징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보다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작동하는 기제 중 하나이다.

앤더슨(2002)은 그의 저서『상상의 공동체』에서 ‘민족’의 개념을 ‘상상의 공동체’라는 표현으로 풀어냈다. 민족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재의 공동체가 아니라 근대 민족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상상의 공동체라는 그의 주장은 많은 논쟁을 불러 왔다.³⁸⁾ 그럼에도 사람들이 상징들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 내집단 의식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설명하기에는 나름의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앤더슨이 말하는 ‘상상의 공동체’는 허구가 아닌 특정 시기에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구성되고 의미가 부여된 역사적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축제라는 형식을 통해 상상의 공동체인 제주도민들은 자신들이 공유하는 상징들을 표현하고 확인하면서 정체성의 방향을 설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즉, 축제는 지역 주민들이 공유하는 상징을 펼쳐내는 광장이면서 상상의 공동체를 실제적인 공동체로 묶어낼 수 있는 문화 공유 방식이라 볼 수 있다.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지역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출하며 공동의

37) 윤인진·황정미(2014), 『한국 다문화주의의 성찰과 전망』, 아연출판부, 19.

38) 앤더슨의 주장에 대한 논쟁은 국가나 민족의 경계와 본질에 대한 것, 앤더슨의 저서에서 사례로 제시된 것에 다른 민족의 사례들을 적용하여 비판하는 연구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앤더슨의 저서는 이후 『상상된 공동체』로 제목을 변경하여 번역본이 출간되고 있다.

기억을 만들어 간다. 다시 말해, 축제는 구성원들의 사회적 자아의식과 정체성을 성장시키는 집단정체성 형성의 장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3. 축제의 발전 과정과 현황, 그리고 과제

역사적으로 축제는 다양한 형태의 신앙 의례와 대동제와 같은 공동체 놀이 등으로 구현되며 참여자들의 결속력과 정체성을 강화하였다.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진행과 마무리까지, 참여자는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로서 축제를 기념하고 즐기는 주체가 된다. 각각의 주체들은 전체적인 과정을 공유하며 결속력을 다지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축제의 성격이 제의적 특성보다는 놀이적 특성으로 점차 더 강화되면서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분리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축제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괴리는 외부 자원을 활용한 이벤트에 기대어 축제를 이끌어 갈수록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축제는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부터 급격하게 늘어났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세계화의 확산 과정에서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해결방안의 하나로 지역축제를 적극 개최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50년 이전에는 6건에 불과했던 국내 축제가 2000년대에는 400여 건으로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555회, 2015년 664회, 2016년 693회, 2017년 733회 등 해마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왔다.³⁹⁾

그러나 지역 경쟁력을 높인다는 기대만으로 무분별하게 축제를 만들어내면서, 많은 축제들이 지역민들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기보다는 외부인의 관심과 소비행위로의 연결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앞서 언급했던 1980년대 외국의 실패를 고스란히 답습하는 수준의 축제가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정학(2018)은 지역축제의 문제점으로 진정성 결여, 프로그램의 진부, 관주도의 선심성, 지나친 상업성, 예산의 비효율성 및 부족, 전문가의 부족 등을 지적하

39) 이정학(2018), 위의 책, 71.

였다. 그러면서 축제로서 존재의 가치는 ‘진정성(authenticity)’에 있으며, 이러한 상황의 주요 원인을 ‘진정성’의 결여로 설명하였다. 진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축제는 지역민이나 방문객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축제로서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정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그는 진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였다.⁴⁰⁾

- ① 지역성과 역사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 ② 지역의 삶과 생활환경이 반영되어야 한다.
- ③ 축제의 프로그램이 주제와 부합되어야 한다.
- ④ 전통문화축제라면 토속적인 공연·음식·관습·춤·수공예품 등을 제공해야 한다.
- ⑤ 지나친 상업적 목적을 배제해야 한다.

축제를 개최하는 취지와 성격에 따라 그 성공 여부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공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축제의 목적과 취지가 경제적이고 가시적인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역축제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축제의 주인공에 반드시 지역 주민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구성원들이 축제를 통해 얻는 다양한 가치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온전히 그 고유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 그러려면 참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축제 자체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야만 한다.

40) 이정학(2018), 위의 책, 42.

제 3 장 지역유산으로서의 제주신화

제 1 절 문화유산으로서의 제주신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제주에는 곳곳에 신화가 전해져 오는데 이 중 상당수가 구전신화에 해당된다. 육지부의 신화가 대부분 개국신화 중심의 문헌신화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제주에서도 탐라개국신화가 문헌신화의 형태로 전승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헌신화는 구전신화를 어느 시점에서 글로 정리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구전신화가 신화의 원형에 더 가깝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제주의 상황에 연결해보면 제주가 신화의 원형이 매우 잘 살아있는 곳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옛 제주를 표현할 때 ‘당 오백, 절 오백’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형상 목사의 사례를 보더라도 실제로는 절보다 당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더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¹⁾ 유교 이념을 이식하기 위한 지배층의 노력에도 결국은 다시 당이 복구되고 여전히 당국이 행해지는 마을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제주의 무속신앙은 뿌리가 매우 깊고 넓게 뻗어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는 신앙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학술적, 문화적 측면에서 제주의 무속신앙을 바라보고 분석하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런 흐름을 볼 때 무속신앙의 틀 안에서 이어져 온 제주의 무속신화는 다양한 이유로 지속적인 전승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된다.

제주신화와 관련하여 용어사용의 측면에서 눈여겨볼만한 대목이 있는데, 바로 ‘본풀이’라는 단어이다. 본디 ‘신화’라는 말은 ‘myth’를 일본인들이 옮겨 적은 말이다. 그렇다면 일본식 번역이 사용되기 전에는 ‘신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대해 임재해(2008)는 제주에서 쓰이는 ‘본풀이’라는 용어는 신화의 우리식 표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⁴²⁾ 애써 일본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새로운 단어를

41) 제주도청, ‘문화/역사’ 목록에서 <제주설화>, <탐라순력도> 설명 참고. (www.jeju.go.kr)

만들 필요는 없지만 이미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본풀이’가 그 의미를 전달하는 바가 크므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제주신화의 정체성에 보다 부합한다는 것이다.

진성기(2010)에 의하면 ‘본풀이’는 심방이 신앙민을 위해 신을 향해 바쳐온 노래이며, 이들의 노래는 다수의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꾸준히 이어져 내려왔다. 이 노래에는 신의 내력담이 담겨있으면서도 도민들의 삶과 역사가 녹아들어가 있어 어느 향토사보다도 많은 고대 제주문화, 제주사회에 관한 귀중한 자료들이 담겨있다. 그리고 도민들의 사상의 근원을 이루고, 도덕적 생활규범의 바탕이 되었다. 심방들의 입을 통해 신의 이야기로 전해져 온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역사와는 분명히 다르지만,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의 원천으로 제주도 고대사의 서술이 ‘본풀이’에서 비롯되었다.⁴³⁾ 그의 말을 종합해보면, ‘본풀이’는 제주도의 신화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삶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은 사회적 기제라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허남춘(2011)은 ‘본풀이’라는 용어가 제주의 신화를 표현하는데 매우 유의미하지만 그 정체성을 모두 표방한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제주적인 독자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보편적인 속성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⁴⁴⁾

용어 사용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겠지만 본풀이가 단순히 제주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용어가 아니라 신화 전반을 표현하는 용어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임재해의 주장은 제주신화가 갖는 보편성과 대표성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⁴⁵⁾

1. 제주신화의 분류

제주신화는 구비전승된 무속신화가 대부분이며, 탐라개국신화 등의 문헌신화 원형을 무속신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42) 임재해(2008), 「한국신화의 주체적 인식과 민족문화의 정체성」, 『한국신화의 정체성을 밝힌다』, 지식산업사, 25.

43) 진성기(2006), 『제주도학』, 제주민속연구소, 16-18.

44) 허남춘(2011),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 신화』, 보고서, 117.

45) 임재해는 자신의 연구물에 ‘신화’라는 용어 대신 ‘본풀이’를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현용준(1996)에 의하면 제주의 무속 신화는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인 자연사상이나 인문사상을 차지하고 있는 신들의 이야기가 일반신본풀이이고 마을 수호신인 당신들의 내력담이 당신본풀이이다. 조상신본풀이는 집안이나 씨족의 수호신에 관한 이야기다.⁴⁶⁾

권태효(2005)도 제주의 무속 신화를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로 구분하면서 이 중 일반신본풀이는 본토의 것과 거의 흡사하며 원래 본토의 것이 제주로 전해진 경우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당신본풀이의 경우 제주의 향토성과 지역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조상신본풀이는 수집된 자료가 미미한데다 개별 가정 차원에 해당되므로 지역정체성과의 연관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일반신본풀이는 특정 마을이나 집안에 국한되지 않고 제주 전역에 걸쳐 다양한 의례에서 행해진다. <천지왕본풀이>,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삼공본풀이>, <삼승할망본풀이>, <마누라본풀이>, <세경본풀이>, <차사본풀이>, <문전본풀이>, <지장본풀이>, <사만이본풀이>, <칠성본풀이>가 있다.

당신본풀이는 <송당본풀이>, <괘네깃또본풀이>, <칠머릿당본풀이>, <세화본향당본풀이>, <토산야드랫당본풀이>, <서흥리본풀이> 등이 있는데, 각기 해당 당신의 내력담을 풀어내는 것이다. 당신본풀이를 통해 마을의 역사를 알 수 있으며, 그 유사성에 따라 동일 계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주에는 마을마다 당이 있고, 당에는 당신본풀이가 있다. 그러나 점차 그 맥이 끊어져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현재는 온전히 남아 있는 곳이 많지 않다.

2. 제주신화의 특성

제주신화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예로는 무속의례의 정수라 할 만한 큰굿이 있다.⁴⁷⁾ 짧게는 4일에서 길게는 보름에 걸쳐 진행되는 큰굿은 4~5명의 심방이 동원되고, 전 무구를 동원하여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종합적 연회이다. 큰굿에서 심

46) 이러한 분류는 1960년대 현용준이 시초가 되었다. 진성기(1991, 2002)의 경우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와 함께 특수본풀이를 더하여 설명하고 있다.

47) 제주큰굿은 2001년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되었다.

방의 입을 통해 풀어내는 신화는 제주 사람들이 자연과 우주의 섭리, 삶의 이치 등을 어떻게 수용해 왔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무엇보다 육지부에서는 사라진 중세어의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어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초감제(청신의례)로 시작돼 공연의례, 기원·영신의례, 천도·해원의례, 오신의례, 가신·조상의례, 송신의례 순으로 진행되는 큰굿에는 천지창조신화, 인간의 생육에 관한 신화, 농경과 생업에 관한 신화, 죽음과 관련된 신화 등이 두루 포함되어 있다. 이수자(1989)는 “전 세계에 보편하는 신화들 중 천지창조신화, 인간의 기원 신화, 농경 및 불의 기원 신화, 죽음의 기원 신화 등등이 있는데, 그간 우리 민족에게는 이런 신화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다.”면서 제주도 큰굿을 통해 우리 민족이 보유했던 신화의 실체 및 제의의 양태가 밝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가치가 크고 그 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⁸⁾

그의 논리는 제주의 큰굿을 통해 확인되는 제주신화가 육지부에서 전파된 것임을 전제하고 있다. 이는 몇 가지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주장이다. 첫째,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신화가 전파되더라도 지역민들의 생활양식과 사고체계에 따라 변이의 과정을 거치게 되거나, 기존에 존재하는 신화와의 융합 과정을 거쳐 또 다른 신화가 탄생될 수 있다. 둘째, 신화와 제의라는 보편 양식을 인류 문명의 발달 과정에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드러나는 자생적 문화체계의 관점에서 해석해볼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주큰굿의 발생 시기와 탐라왕국의 국제 교류 양상, 민족 신화의 구조적 틀과 실제적 영향권 등을 명확하게 밝혀내기 힘든 상황에서 육지부의 신화가 제주에 그대로 전파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그의 주장과 같이 제주신화가 문화전파의 영향을 받았고, 육지부와 상관계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그 전파의 방향이 현재의 민족 개념의 틀에서 진행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와 함께 신화와 제의의 발생에 대한 해석을 보다 다층적이고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제주큰굿 안에서 전승되는 제주신화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수자(2004)는 저서를 통해서도 제주큰굿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⁴⁹⁾

48) 이수자(1989),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

이에 대해 강정식(2004)은 이수자가 제주큰굿의 구조적 원형을 정리하여 제시한 내용을 보충하여 표로 제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제주큰굿의 구성과 내용, 해당원리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⁵⁰⁾

〈표 3〉 제주큰굿의 구조적 원형 분석표

의례명	본풀이	내용, 대상	해당원리
① 초감제	천지왕본	종합영신	창세(질서)
② 불도제	할망본, 마누라본	산육	탄생
③ 초공제	초공본	巫祖	巫儀
④ 이공제	이공본	呪花	죽음과 환생
⑤ 삼공제	삼공본	전상	운명
⑥ 시왕제	차사본	시왕, 차사	사후
⑦ 명감제	명감본	防厄	장수
⑧ 세경제	세경본	농경, 목축	食
⑨ 칠성제	칠성본	풍농 · 富	食
⑩ 성주제	문전본	성주	주거
⑪ 본향제	당신본	지역	주거
⑫ 일월조상제	조상본	조상	혈연
⑬ 종합송신의례	—	종합송신	—

출처 : 강정식(2004)

큰굿과 관련하여 조선시대 문헌기록을 살펴보면, 김정(金淨, 1486~1520)은 『제주풍토록』에서 “남자 무당이 매우 많다”(男巫甚多)고 지적하고 있다. 김상헌(金尙憲, 1570~1652) 역시 『남사록』에서 “이 지방 풍속엔 예부터 여무(女巫)가 없고, 무릇 귀신을 모시고 기도하는 일은 다 남자 무당이 한다.”⁵¹⁾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제주도에서 유교의 영향력이 본격화되기 전에는 굿이 매우 일상적

49) 이수자(2004)는 『제주도 무속을 통해서 본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라는 저서를 통해 그가 박사학위논문에서 주장했던 제주큰굿에 대한 주장을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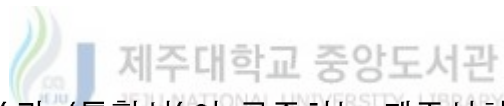
50) 강정식(2004), 「서평 - 이수자 지음 『제주도 무속을 통해서 본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 『한국종교연구』 6, 서강대학교 종교연구소, 187.

51)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folkency.nfm.go.kr>), 2019년 3월 21일 검색어 ‘제주큰굿’.

으로 행해지는 의례였고, 그 의례의 집전은 대부분 남자 심방이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큰굿은 제주 지역 굿의 원형이면서, 무속신화 전승자인 심방들의 학습 현장이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신앙생활 변화와 심방의 노령화, 전승의 어려움 등으로 큰굿을 보는 것이 점차 어렵게 되었다. 현재 제주큰굿은 (사)제주큰굿보존회를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으며, 탐라문화유산 발굴 및 복원사업으로 지정되어 대중성을 가미한 축제의 형식으로 풀어내는 등의 전승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의 당 신화는 지역민들의 삶을 잘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당이 마을의 중심이 되고 정체성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케 한다. 마을 사람들은 본향당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였는데, 이 공동체는 신앙생활뿐 아니라 생업과도 관련되었다. 제주에서는 신을 모시는 장소를 당(堂)이라고 하며, 당마다 신의 내력담을 풀어내는 본풀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 모시는 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제 2 절 ‘독자성’과 ‘통합성’이 공존하는 제주신화

주로 무가의 형태로 전승되어 온 제주의 신화는 문헌신화와 별개의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과 상황을 연결해보면 제주섬이라는 시·공간 안에서 맥락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현용준(1992)의 연구를 분석한 김현선(2005)은 제주의 당본풀이 계보를 구역을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① 송당신화계구역 : 조천, 구좌 등의 북서쪽에 분포
- ② 토산7·8일신화계구역 : 성산, 표선, 남원 등지에 분포
- ③ 호근7일신화계구역 : 서귀포, 중문, 안덕 북부까지 분포
- ④ 하예7일신화계구역 : 안덕 일대에 주로 분포
- ⑤ 축·술이당신화계구역 : 한경, 한림, 애월 등지에 분포
- ⑥ 기타 계보군 : 앞의 다섯 구역의 신화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이는 제주도 내에서도 다양한 신화계로 분화되어 전승되는 당본풀이가 마을의 특성을 반영하여 독자성을 확보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하겠다.⁵²⁾

그런데 탐라의 건국신화와 관련하여 눈여겨볼만한 부분이 있다. 진성기(1991)에 의하면 제주의 당본풀이는 크게 북군과 남군이 다르게 전승되었는데 이는 지방의 계보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그 중 공동체의 모양새를 갖추어 가는 시조와 관련하여 그 양상의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북제주군에⁵³⁾서는 당신의 계보를 구성하는 부모신이 소로소천국과 송당본향당의 당신인 백주할망이다. 남신인 소로소천국은 알손당 고부느므르에서 솟아났고, 백주할망은 강남천자국의 백모래밭에서 솟아났다. 남제주군의 경우 남신들이 할로영주산 썰거릿낭된밭에서 솟아났다는 것과 셋어깨 소못된밭에서 솟아났다는 설로 나뉜다. 이는 탐라의 건국시조인 삼신인의 탄생설과도 맥을 같이 한다.

건국시조의 탄생은 크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강설, 알에서 탄생하는 난생설, 땅에서 솟아나는 지중용출설 등으로 나뉜다. 지중용출설은 탐라를 비롯해 유구와 대만, 태평양 해양도서 등에 두루 분포한다.⁵⁴⁾ 제주의 경우 삼을라신화⁵⁵⁾를 비롯하여 무속에서도 신들의 지중용출설이 등장한다. 이는 대지도 사상을 기반으로 하면서 화산활동을 통해 지형이 형성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토착세력과 이주민 세력이 결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이다. 육지부에서의 건국신화에서도 토착세력과 이주민 세력의 결합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제주의 탐라개국신화에는 수렵생활을 하던 삼신인이 이주민 세력인 삼공주를 만나 각기 지역을 정하여 정착생활을 하게 되는 과정이 나온다.⁵⁶⁾

52) 김헌선(2005), 「제주도 당본풀이의 계보 구성과 지역적 정체성 연구」, 『비교민속학』 29, 비교민속학회, 253-256.

53) 참고문헌에 나온 행정구역명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현재는 그 명칭과 행정 구역 상의 변동이 있다.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은 2006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각각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통합되었다.

54) 허남춘(2011), 위의 책, 23.

55) 연구자는 탐라개국신화를 대표하는 용어로 ‘삼성신화’보다는 ‘삼을라신화’가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용어를 사용하였다.

56)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당본풀이가 여럿인데다 지역마다 다른 내용이 첨가된 경우들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비교적 영향력이 크고 전승지역의 범위가 넓은 당본풀이를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송당본풀이>에 등장하는 소로소천국은 땅에서 솟아나 수렵생활을 하던 남신이다. 외지에서 들어온 백주할망은 농경생활을 기반으로 정착생활을 하는 여신이며, 두 신의 결합으로 수렵생활 중심에서 농경생활 중심으로 넘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제주군의 경우 외래신과의 결합 형태는 아니지만 남신인 중문리 제7남과 천지천왕어멍국 족달리대서부인의 위계가 대등하고, 나아가 딸신의 계보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⁵⁷⁾

<탐라개국신화>의 기원을 <송당본풀이>로 보는 학문적 견해⁵⁸⁾를 통해 해석한다면 탐라국은 사실상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다양한 세력이 결합된 글로벌 국가의 표상으로 보아야 한다. <탐라개국신화>와 <송당본풀이>는 그 수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수렵생활을 하던 토박이 세력과 농경생활 중심의 이주민 세력의 결합으로 지역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착생활 이후에 <송당본풀이>에 나오는 갈등 상황과 정착지 분화 현상은 <탐라개국신화>에 나타나지 않는다.

두 신화는 전반적으로 내용 전개의 유사성을 보이지만 이를 수용하는 측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속신화의 경우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모두 남신과 여신이 대등한 위치에 있지만 <탐라개국신화>에서 선진 문물을 전해준 삼공주의 역할이 삼신인과 대등하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은 신화의 형성과 전승과정에서 수용주체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드러낸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해 제주신화의 상당 부분이 무속신화의 형태로 전승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샤머니즘의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은 제주신화와 지역정체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제주의 신화는 제주섬의 자연적 특성 안에 지역민들의 삶이 녹아들어가 면면히 문화전승의 체계로 이어졌으며, 그 의미는 신앙의 여부를 떠나 모두에게 보편의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평가받아야 한다.

57) 김현선(2005), 위의 논문, 261.

58) 탐라개국신화의 기원을 본풀이에서 찾으려는 학문적 시도는 현용준, 조동일, 장주근, 허남춘 등이 있다.

제 3 절 제주신화와 문화콘텐츠

2017년 <신과 함께 - 죄와 벌>에 이어 2018년 <신과 함께 - 인과 연>은 기록적인 흥행을 보이며 신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신과 함께>의 원작자인 웹툰작가 주호민은 웹툰의 내용 중 상당부분을 제주신화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였다.⁵⁹⁾ 비교적 신화의 원형이 잘 남아있는 제주도의 경우 신화를 소재로 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들을 발굴해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문화적 상징을 통해 내집단 의식을 높이고 관련 축제 등으로 실질적인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으며, 다양한 소득 창출의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 제주신화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은 본격화되지 못한 상황이며, 콘텐츠 개발부진의 원인 분석과 함께 체계적인 개발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1. 제주신화 콘텐츠 개발 부진의 이유

그리스 신화나 북유럽 신화 등은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로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제주신화를 활용한 문화콘텐츠는 동화나 소설 등이 대부분이고, 최근에야 지역정체성 정립에 대한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애니메이션과 같은 방송콘텐츠 제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제주신화가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되지 못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신화를 과학과 논리적 사고와는 거리가 먼 미신으로 여겨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형상 목사의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유교중심의 조선에서는 무속의 형태로 전승되는 제주의 신화를 척결해야할 대상으로 여겼지만 제주인들은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켜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산업발전과 함께 과학 중심의 사고와 외래 종교의 확산이 무속신앙 중심으로 전승되던 제주신화의 위축을 초래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59) YTN 2017년 5월 28일 방송, “고수의 비결 - 주호민 웹툰 작가” 참고.

둘째, 중앙정치에서 소외되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인데, 지배권력 측면에서와 지정학적 측면 모두에 의해서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제주신화 관련 콘텐츠의 개발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오히려 제주의 신화가 여전히 잘 남아있게 된 요인이기도 하다.

셋째, 신화를 해석함에 있어 역사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신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드라마들은 대부분 역사적 해석을 통해 재현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문헌을 바탕으로 고증하는 식의 역사드라마의 형식을 신화에 적용하다보니 대부분 건국신화를 재현하는 방식에 그쳤던 것이다. 그런 이유로 무속신화 중심의 제주신화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넷째, 제주신화를 연구하는 전문가의 부족을 들 수 있다. 그리스신화의 경우 그리스인이 아니더라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신화는 제주도 내에서도 전문가의 수가 많지 않다. 그나마 뜻이 있는 학자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신화를 수익사업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더 눈에 띄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제주신화가 제대로 원형질을 살려내고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재탄생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리고 제주신화의 깊이와 가치를 깎아내려 가벼운 오락거리로 전락시킬 우려마저 들게 한다.

2. 제주신화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현황과 발전 가능성

제주의 신화는 출판 단계에서 시작해 현재는 애니메이션 제작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06년 김달님의 웹툰 <돌아온 자청비>⁶⁰⁾가 인터넷 포털을 통해 소개되기 시작하였고, 2009년에는 이하림·김병관·민숙영이 제작한 <제주구슬할망>으로 이어졌다. 2010년 연재를 시작한 주호민의 <신과 함께>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영화로도 제작되어 제주신화의 콘텐츠 경쟁력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

60) 2006~2007년 다음 웹툰에 연재.

하였다. 그러나 캐릭터 산업으로의 연계는 산발적으로 시도되는 정도에 머물러 있어 세계적 캐릭터로 만들어가는 것은 아직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주호민의 <신과 함께>에 비해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네이버 웹툰에 연재되었던 <제주구슬할망>⁶¹⁾은 제주신화에 내포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잘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주구슬할망>은 제주시 조천읍 신촌마을의 구슬할망 신화를 소재로 하여 만들어진 작품이다. 완성도가 떨어지고 구슬할망의 신성성이 잘 드러나지 않아 신화적 요소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작품이지만, 원전에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져 신화에 녹아있는 평화와 화합의 철학을 제주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⁶²⁾

제주의 신화는 대부분 구전신화로 전승 과정에서 다양한 변이가 일어났다. 그렇기에 비슷한 듯 다른 신화가 곳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런 제주신화의 특성은 문자로 형상화하는 콘텐츠보다는 이미지화를 통한 콘텐츠 전략에 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OSMU(One Source Multi-Use) 방식으로 신화적 상상력을 반영하여 시각과 공간 이미지들을 활용하는 작업들을 제주신화 축제의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제 4 절 축제의 현장에서 전승되는 제주신화

1. <설문대할망페스티벌>과 관련 신화

1) 관련신화 개요

제주는 신화의 원형이 비교적 잘 살아 있는 곳이며, 그 중에서도 여신에 대한 부분이 육지부에 비해 잘 남아있는 지역이다. 이는 제주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육지부와 다르다는 것을 반증한다. 남성영웅과 남신의 이야기가 중심축을 이

61) 2009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네이버 웹툰에 연재.

62) 김진철(2015), 「신화 콘텐츠의 스토리텔링 전략」,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99-101.

루는 육지부에 비해 제주는 여성영웅과 여신의 이야기가 중심축을 이룬다.

‘설문대할망’ 신화는 지역마다 약간의 변이가 있기는 하지만⁶³⁾ 제주 전역에 전승되고 있으며, 지형형성과 관련된 거구의 창조신 이야기가 중심을 이룬다. ‘설문대할망’으로 알려진 제주의 창조신은 ‘마고할미’의 모습과 특성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 비슷한 모습의 마고할미 설화는 한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전해져 오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있으며, 유구의 아만추 신화나 나중에 남신으로 변이된 만주의 아부카허허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 거대 여신이다.

한국의 마고할미는 지역별로 부르는 이름에 차이가 있고, 세부적인 이야기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경남 밀양, 거제도, 전남 해남 등에서는 동일하게 마고할미라 칭하지만 경기도 양주에서는 노고할미, 강원도에서는 서구할미라 부르고 있다.⁶⁴⁾ 그러나 이 거대여신에 대한 이야기의 전승과정과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다가오는 의미에서는 많은 차이를 드러낸다.

마고할미 설화가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것과는 다르게 설문대할망 설화는 제주 지역에 국한되어 전해진다는 특징을 보인다. ‘설문대’라는 이름은 제주도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선문대·선문대·선맹뒤·설문대·세명뒤·할망·마고할망·사만두고·설만두고’등으로 다양하게 전해지던 것이 1990년대 후반 대중문화에 자주 활용되는 ‘설문대’로 통일되는 형태가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⁶⁵⁾

선행연구와 설화의 변이 양상을 분석해 보면 마고할미와 설문대할망을 전혀 다른 존재로 파악하기는 어렵다.⁶⁶⁾ 거대여신 설화는 전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 변형되고 정착되는 과정의 결과물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성 있다고 판단된다. 육지부에서 마고할미와 비슷한 특성을 보이면서 다른 이름으로 전래된 거대여신이나, 제주에서 설문대할망과 비슷한 거대여신들의 이름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육지부의 마고할미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에도 창조의 여신으로 추앙하거나 그 이름을 각종 행사, 기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와

63) 지역과 시기에 따라 ‘설문대할망’ 신화에 대한 변이 양상이 보인다. 대표적으로 설문대할망의 죽음에 대한 것과 남편의 존재를 들 수 있다.

64) 조현설(2006), 『우리신화 수수께끼』, 한겨레출판, 79.

65) 김순자(2010), 「‘선문대할망’과 그 別稱」, 『탐라문화』 37,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303.

66) 설문대할망과 거대여신의 관련성을 비교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허남춘, 조현설 등이 있다.

다르게 제주도에서의 설문대할망은 여전히 제주를 창조한 여신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 설문대할망 신화

설문대할망은 천지를 창조한 거대여신이다. 치마폭에 흙을 담아 날라 한라산을 만들었는데, 치맛자락의 터진 곳으로 조금씩 흘러 흙이 오름이 되었다 한다. 한 벌밖에 없는 옷을 매일 빨기 위해 한라산을 깔고 앉고 성산일출봉을 빨래바구니로 사용했다 하니 그 거대함이 제주의 자연 그대로를 묘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설문대할망은 탐라 백성들이 육지로 갈 수 있는 다리를 놓아 달라고 하자 자신에게 맞는 옷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사람들은 열심히 옷을 만들었지만 할망에게 맞는 옷은 명주 100통이 필요한데 가지고 있는 명주를 다 모아도 1통이 모자랐다. 결국 할망이 다리를 놓아주지 않아 탐라는 섬의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했다.

설문대할망의 신체와 그 활동에 대해서는 제주 전역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설로 나뉘어 전승되고 있다.

첫 번째는 오백 명의 아들을 먹이기 위해 죽을 쑤다가 그 솥에 빠져 죽었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죽은 줄 모르고 그 죽을 먹은 아들이 한라산 영실의 오백장군이 되었다고 한다.

두 번째는 설문대할망이 큰 키를 자랑하다가 물장오리에 빠져 죽었다는 것이다. 물장오리는 『신증동국여지승람』, 『탐라지』, 김성구의 『남천록』에 '장울악(長兀岳)'으로 표기되어 있다. 『탐라지』에 "산봉우리에 용못이 있는데, 지름이 50보정도 되고 깊이는 잴 수 없다. 사람이 시끄럽게 떠들면 구름과 안개가 사방에서 일어나고 비바람이 사납게 몰아친다. 가뭄이 들었을 때 기우제를 지내면 효험이 있다."라고 기록했다⁶⁷⁾는 것으로 보아 설문대할망이 물장오리에 빠져 죽은 것을 단순히 키가 큰 것을 시험해보려는 정도로 해석하기보다는 그 영험함과 연결하여 대자연의 측면에서도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

설문대할망의 죽음은 여신의 시대가 가고 남성 중심의 시대가 왔음을 의미한다. 지역에 따라 여신의 죽음을 표현할 때 매우 고약한 할미가 비참한 최후를 맞

67) 국토지리정보원(2010), 『한국지명유래집 전라·제주 편』, 국토지리정보원, 758.

이하는 식으로 전승되거나 여신의 의미 자체가 축소되기도 하였다. 이런 차이는 여신의 시대가 남성신 중심의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2) 설문대할망 신화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

‘설문대’라는 이름은 제주 지역 내의 다양한 행사와 장소에 사용되며 제주를 상징하는 창조여신으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 제주돌문화공원은 설문대할망신화와 그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설문대할망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이외에도 ‘설문대도서관’, ‘설문대문화센터’와 같이 공공기관의 명칭에도 등장할 만큼 제주에서는 친숙하게 쓰이고 있다.⁶⁸⁾

2. <송당마불림제>와 관련 신화

1) 관련 신화 개요

제주에서 송당은 무속신앙의 고향과 같은 곳이다. 김진하((2006)는 제주섬 곳곳에 흩어져 있는 신당의 당신들의 상당수가 송당신의 자손이라는 심방들의 구술을 예로 들면서 마을 전체가 신당 역할을 하는 송당을 단군신화의 ‘신시’와 같은 곳으로 해석하였다.⁶⁹⁾

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금백조 여신과 남신인 소로소천국의 자녀가 아들은 18명, 딸은 28명이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자식들의 자식들까지 제주 전역으로 뻗어나가 당신이 되었다고 하니 송당을 ‘신시’와 같은 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나름의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본향당 일원에서 진행되는 <송당마불림제>는 매년 음력 7월 13일 장마가 끝난 후 신당의 곰팡이(마)를 청소하던 것에서 유래되었다. 송당본향신은 제주도 본향신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신인 금백조(백주또)의 옷을 바람에 불려서 말린다는 의미의 제의이다. (마)를 장마로 해석하여 여름 장

68) 김순자(2010), 앞의 논문, 290.

69) 김진하(2006), 「송당 신화의 기원에 대한 고찰」, 『탐라문화』 29,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68-69.

마에 농작물이 피해를 입지 않고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로 보기도 한다.

송당본향당은 원래 웃손당에 속했다. 4.3으로 인해 중산간 마을이 초토화되면서 알손당과 셋손당이 웃손당과 하나로 통합이 되었고, 현재 송당본향당에는 웃손당 금백주, 셋손당 세명주, 알손당 소로소천국의 세 신위가 모셔져 있다.

제주의 중산간 마을에서 행해지는 <마불림제>는 당굿 외에도 목축문화와 관련된 테우리코사⁷⁰⁾를 볼 수 있어 더욱 의미가 깊다. 이는 목축업을 주로 하던 지역의 특성 때문에 <마불림제>가 우마증식을 위한 목동들의 제의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불림제>는 백중 시기⁷¹⁾에 행해져 ‘백중제’라고도 하는데, <테우리코사>와도 연결되어 있다. 금백조 여신의 옷과 신물, 신당의 마를 말린다는 의미와 농사의 풍요를 비는 것에서는 백주또 신화와 관련이 있고, 농사의 풍요와 목축의 번성을 기원하는 것은 자청비 신화와 관련이 있다. 백중제라고도 하는 것은 시기상의 일치로만 해석하기도 하지만 백중의 기원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1) 금백조(백주또⁷²⁾) 신화

송당본향당의 명칭은 ‘웃손당 백주할망당’이다. 본풀이를 통해 송당본향당의 당신인 금백조와 소로소천국의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⁷³⁾

- ① 서울 남산 송악산에서 태어난 금백주가 알손당 ‘고부니모를’에서 솟아난 소로소천국과 결혼하여 아들 열여덟, 딸 스물여덟을 낳고 산다.
- ② 많은 자식들을 기르기 위해 남편과 농사를 짓자고 약속했는데, 시주를 받으러 마을로 가던 동개남 상좌승이 소로소천국에게 점심밥을 달라고 하므로 주었더니 모두 먹고 달아나 버린다.

70) ‘테우리’는 목동, ‘코사’는 고사를 의미한다.

71) 제주는 마을의 당신을 모시는 본향당에서 제의를 치르는데, 4대 제의를 치르는 날짜의 끝수를 맞추기 때문에 마을마다 백중제의 날짜가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다. 송당본향당은 4대 제의를 3으로 끝나는 날짜에 맞추고 있다.

72) ‘~또’는 신명에 대한 존칭이다. ‘~할망’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73) 문무병(1993),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8-59.

- ③ 배가 고프는 소로소천국은 밭을 갈던 소를 때려 죽여 구어 먹고 남의 소까지 잡아 먹은 후 겨우 배고픔을 달래며 쟁기로만 밭을 갈았다.
- ④ 화가 난 금백조는 땅 가르고 물 갈라 살림을 분산하자고 한다.
- ⑤ 부인과 가족을 떠난 소로소천국은 고부니모를로 내려가서 강진역의 딸을 첩으로 얻고 수렵 생활을 한다.
- ⑥ 일곱째 아들이 자라서 일곱 살이 되니 아버지 무릎에 앉아 수염을 잡아당기고 가슴팍을 치고 하니 불효하다고 하여 무쇠설갑(鐵函)에 담아 동해 바다에 띄워 버린다.
- ⑦ 석함은 동해 바다 용왕국 산호수 가지에 걸려 용왕의 셋째 딸과 혼인하였는데 너무 식성이 과다하였기 때문에 용궁에서 쫓겨나게 된다.
- ⑧ 강남국에 가서 세변을 막고 도원수가 되어 제주도에 돌아온다.
- ⑨ 아버지에게 절을 하려 하니, 아버지는 달아나 당신이 되고, 어머니 금백조는 살 곳을 찾아가 산 설립, 물 설립하고 인간 백성들에게 수명장수, 오곡풍성, 육축번성, 농사설비 시켜주라고 한다.
- ⑩ 자식들은 사방으로 가지를 뻗어 마을 단골들에게 낳는 날 생산, 죽는 날 물고 받는 당신이 되었다.



<송당본풀이>를 통해 수렵생활을 하던 토착세력과 농경생활을 하던 외래세력의 결합과 갈등, 아들 이야기를 통해 드러나는 영웅서사시, 당신앙과 마을의 분화 과정 등을 읽어낼 수 있다.

(2) 자청비 신화

자청비 신화로도 불리는 <세경본풀이>는 농사와 목축을 관장하는 신의 이야기로 상세경인 문도령, 중세경인 자청비, 하세경인 정수남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주요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⁷⁴⁾

- ① 천하거부인 김진국 대감과 즈지국 부인은 늦게까지 자식이 없었다.
- ② 열심히 불공을 드려 딸을 얻고 이름을 자청비라 지었다.

74) 현용준(2005)이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에서 안사인본을 중심으로 이본들의 요지를 첨가하여 정리한 것을 연구자가 재정리함.

- ③ 주천강 연못에서 빨래를 하던 자청비와 하늘나라 문선왕의 아들 문도령이 만난다.
- ④ 자청비에게 호감을 느낀 문도령이 물을 달라하고, 자청비는 문도령이 물을 급하게 마시지 않도록 버들잎을 띄워 건네주었다.
- ⑤ 버들잎을 띄운 이유를 알게 된 문도령이 자청비의 지혜에 감복하였고, 자청비는 남동생인척 하며 함께 글공부를 하러 떠난다.
- ⑥ 3년이 지나도 문도령은 자청비가 여자임을 모른다.
- ⑦ 문도령이 돌아와 서수왕 따님에게 장가들라는 편지를 받고 서당을 떠나는데 자청비도 함께 떠나는 길에 여자임을 밝힌다.
- ⑧ 문도령은 자청비에게 미래를 약속하고 증표로 얼레빗 반쪽을 주며 복숭아씨를 심어 꽃이 필 때까지 돌아오겠다고 한다.
- ⑨ 문도령은 돌아오지 않고 머슴 정수남이 자청비를 속여 겁탈하려 하자 자청비가 정수남이를 죽인다.
- ⑩ 종을 죽인 것에 화가 난 부모가 자청비에게 종의 일을 하게하고 결국 집에서 쫓아낸다.
- ⑪ 남장을 하고 서천꽃밭의 문제를 해결해준 자청비가 꽃감관의 막내사위가 되었고, 생명꽃을 따다 정수남이를 살려냈으나 자청비의 부모는 이를 이유로 다시 딸을 쫓아낸다.
- ⑫ 집에서 나와 주모할머니의 수양딸이 된 자청비는 할머니가 짜는 비단이 문도령의 혼수임을 알고 비단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 ⑬ 문도령이 자청비를 만나러 왔지만 자청비의 장난으로 만나지 못한다.
- ⑭ 우여곡절 끝에 하늘로 올라간 자청비와 문도령이 만났으나 부모의 승낙을 받지 못한 사이인지라 숨어 지내게 된다.
- ⑮ 문도령의 부모는 자청비의 존재를 알고 며느리 시험을 보고, 힘든 시험을 통과한 자청비가 문도령과 혼인한다.
- ⑯ 남장을 하고 꽃감관의 막내사위가 되었던 자청비는 자신 대신 문도령을 보내 한 달에 보름씩 있다 오게 하였다.
- ⑰ 자청비와 문도령의 행복을 시기한 하늘나라 청년들에 의해 문도령이 죽자 자청비가 서천꽃밭에서 환생꽃을 따다가 다시 살려낸다.
- ⑱ 이후 하늘나라의 난리를 평정한 자청비는 그 대가로 천제왕에게 오곡씨를 받아 문도령과 함께 7월 열 나흘날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이 날이 바로 백중제일이다.

- ⑬ 내려와 보니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정수남이가 굶어 죽게 생기자 자청비가 농사에 실통을 부려 7월 마불림제를 받아먹게 하였다.

(3) 백중의 기원과 <마불림제>

백중은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세시풍속의 하나이다. 백중의 기원에 대해서는 지역과 종교에 따라 이견이 있다.⁷⁵⁾ 전통적으로 백중날이 육지부에서는 음력 7월 보름이지만, 제주에서는 7월 14일로 본다. 또 대부분 지역에서 농사의례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지만 제주에서는 목축과 관련된 <테우리코사>가 특징적이다. 백중을 머슴의 생일이나 상놈명절이라는 이칭으로 부르는 지역들이 있는데, 백중을 전후해 논외 김매기가 끝난 후 머슴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로 새 옷과 음식, 돈을 주며 놀게 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⁷⁶⁾

제주에서 행해지는 백중의 기원은 크게 두 가지의 추론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진성기(2010)의 『제주의 세시풍속』에 나온 목동 백중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수자(1993, 2004)의 <세경본풀이>와 관련되었다는 주장이다.

진성기에 의하면 “백중이라는 목동이 옥황상제의 명을 몰래 엿들은 후 그 명으로 인해 농민들이 농사를 망치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다. 원래 옥황상제의 명은 바다거북에게 풍우대작게 하라는 것으로 농사에 큰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이었다. 이를 알게 된 목동은 옥황상제 목소리를 흉내 내어 오히려 풍작을 이루게 하였다. 사실을 알게 된 옥황상제는 노하여 백중을 잡아들이라 하였고, 옥황상제의 벌을 받는 것이 죽는 것보다 두려웠던 백중은 스스로 바다에 빠져 죽었다. 백중덕에 풍작을 이룬 농민들은 그를 기리며 해마다 그가 죽은 7월 14일에 제를 지내게 되었다.”⁷⁷⁾

<세경본풀이>와 관련된 이수자의 해석은 농경신 자청비가 오곡종자와 열두시 만국을 가지고 칠월 열나흘에 지상으로 내려온 후 머슴이었던 정수남이 굶어 죽게 된 것을 보고 그를 목축신으로 좌정시켜 마불림제를 얻어먹고 살게 했다는

75) 농경 중심의 지역에서는 백중을 농경의례로 해석하지만 제주의 경우 중산간 마을을 중심으로 목축의례의 성격이 크게 작용한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제자 목련의 이야기와 연결하여 해석하기도 한다.

76)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folkency.nfm.go.kr>), 2019년 3월 25일, 검색어 ‘백중’.

77) 진성기(2010), 『제주의 세시풍속』, 디딤돌, 246-247.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⁷⁸⁾ 그는 자신의 주장을 현용준의 『제주도무속자료 사전』과 연결하여 설명하였는데,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가 칠월 열나흘에 하늘에서 오곡과 열두시만국을 가지고 내려온 일과 “~이러한 일로 하여 칠월 열나흘이 백중살이가 되옵니다~”라고 언급된 부분을 근거로 백중의 기원을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농경기원일이라고 덧붙였다.

진성기의 주장과 이수자의 주장을 백중의 이칭과 연결하여 해석해 보면 제주지역 백중제의 기원에 농경과 목축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목축의 신 정수남이 자청비의 머슴이었던 것과 가축이 농경에 기반이 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백중이 농사의례이든 목축의례이든 그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목동 백중을 기리며 제를 지내는 것은 자청비가 죽어 가던 정수남이를 목축신에 좌정시켜 <마불림제>에서 얻어먹게 했던 것과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머슴의 생일이라는 백중의 이칭과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여지가 있다.

3. <온평혼인지축제>와 관련 신화

1) 관련 신화 개요

혼인지는 탐라국 시조인 삼신인(고을라·양을라·부을라)⁷⁹⁾과 벽랑국 삼공주가 혼인을 치른 곳이다. 1971년 8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기념물 제 17호로 지정되었으며,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혼인지로 39-22이다.

바다를 통해 외부에서 새로운 세력이 들어오는 도래신화는 대부분 건국신화와 관련이 있다. 이는 토착민들의 생활에 새로운 세력이 유입되며 지배층에 변화를 가져왔음을 의미한다. 탐라개국신화의 한 축인 혼인지 신화는 세력규합과 재편성의 관점에서 가야국의 허황옥 도래신화와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탐라의 혼인지 신화는 수렵생활을 하며 살던 삼신인이 오곡종자와 우마를 가져온 삼공주를 만남으로써 새로운 생산단계로 넘어갔다는 점에서 사회경

78) 이수자(2004), 「제주도의 마불림제가 백중과 상관성을 갖게 된 원인과 그 의의」, 『역사민속학』 19, 한국역사민속학회, 292.

79) 문헌상으로는 양을라와 부을라의 순서에 이견이 있으나, 연구자는 제주지역 성씨 구성비(2018년 현재)에 따라 인구수가 많은 순서대로 기입하였다.

제사적 발달 단계를 잘 드러낸다는 특징이 있다.

(1) 탐라개국신화

일반적으로 탐라개국신화를 ‘삼성신화’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탐라의 역사를 특정 성씨의 틀 안에 가두고 탐라국의 위상과 의미를 축소할 수 있다. 나아가 탐라국의 개국과 발전 과정에 삼공주의 역할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점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연구자는 혼인지신화가 소위 삼성신화의 보조 개념으로 인식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전경수(1992)가 제안한 ‘을나신화’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이를 혼인지신화와 함께 탐라개국신화로 묶어 논하고자 한다.

탐라개국신화는 간행 연대가 고려 말에서 조선 초로 추정되는 <영주지>⁸⁰⁾를 비롯하여 1454년 간행된 <고려사>지리지, <탐라지>, <동국여지승람>, <동국통감>, <탐라기년>, <편례초> 등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삼공주의 도래와 관련된 세부 내용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듯하다.

각 문헌에 나온 삼공주의 도래 대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⁸¹⁾

[<고려사>, 志 卷 第十一, 地理二]

- ① 자줏빛 흙으로 봉해진 나무함이 동쪽 바닷가에 떠밀려와 이를 여니, 안에 돌함과 붉은 띠에 자줏빛 옷을 입은 사자가 있었다.
- ② 돌함을 여니 푸른 옷을 입은 세 처녀와 송아지, 망아지 그리고 오곡종자가 있었다.
- ③ 사자가 말하기를 자신은 일본국에서 왔으며, 임금님의 명으로 세 공주를 삼신인의 배필로 모시고 왔다 하였다.
- ④ 사자가 구름을 타고 떠난 후 세 사람은 나이 차례에 따라 세 공주에게 장가를 들었다.

80) <영주지>는 단행본으로 간행된 것이 아니라 1416년 정이오가 저술한 「성주고씨전」, 1450년 고득중이 저술한 「서세문」, 기타 「고씨세보」 등으로 이어져 있다.

81) ‘허남춘(2011), 위의 책, 190-191.’의 내용과 ‘문무병(1990)의 「마을의 설촌과 당본풀이」’에 나온 내용을 종합하여 연구자가 재정리함.

[김석익, <탐라기년>, 1918]

하루는 자줏빛 흙으로 봉해진 목함이 동쪽 바닷가에 떠밀려 왔음을 발견하게 되어 (세상에 전해오기를 삼을라가 나라를 열 때에 벽랑국 사자가 세 신녀를 받들고 ‘연혼포’에 배를 대었으니 지금의 정의현 ‘열운리’가 이곳이다)...

[김두봉, <탐라지>, 1933]

연혼포, 일명 열운리라고도 한다. 현의 동쪽 20리쯤에 있으니 삼을라가 개국할 때에 일본 사자가 삼신녀를 모시고 와서 여기에 배를 대었기로 생긴 이름이다.

[담수계⁸²⁾, <중보탐라지>, 1955]

세전에 삼을라 개국시에 벽랑국 사자가 삼신녀를 모시고 연혼포에 내박하였다. 운하니 연혼포는 성산면 열운리 즉 온평리라

[<판례초>, 연대 미상]

자줏빛 진흙으로 봉해진 목함이 동쪽 바다로부터 떠밀려와서 ‘금당’인 지금의 ‘조천포’ 바닷가에 이르렀는지라 이를 열었더니 석함이 있고...

[<영주지>계, 규장각 소장본]

- ① 태초에 사람이 없다가 모흥혈에서 삼신인이 솟아났다.
- ② 그들은 수렵생활을 하며 육식을 하였는데, 가업을 이루지 못했었다.
- ③ 하루는 한라산에 올라서 보니 자줏빛 나무함이 동해 쪽에 머물러 있었다.
- ④ 삼신인이 내려와 이를 열어보니 새알 모양의 옥함과 사자가 있었다.
- ⑤ 옥함을 여니 세 처녀가 있었는데, 망아지와 송아지, 오곡씨앗을 가지고 와서 금당(조천리)에 내려놓았다.
- ⑥ 사자가 말하기를 세 처녀는 벽랑국의 공주이고, 임금의 명을 받아 세 공주를 삼신인의 배필로 모셔왔다고 하였다.
- ⑦ 삼신인은 나이 차례로 세 공주와 혼인을 하고 활을 쏘아 각기 거처할 곳을 정하였다.

82) ‘담수계’는 1953년 김석익 등 제주지역의 석학들이 만든 모임의 이름이다.

문헌에 기록된 탐라국 도래 신화와 함께 온평리 주민들의 입을 통해 전승된 설화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문무병(1990)에 의하면 마을 촌로들의 입을 통해 문헌과는 다른 몇 가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세 처자는 금관국의 왕녀이다.
- ② 세 처자가 담겨 온 것은 꽃 상자이다.
- ③ 세 처자가 도착한 곳은 화성개(온평리)이다.
- ④ 삼신인의 서열은 나무 오르기를 통해 결정되었다.

문헌과 온평리의 설화를 종합해보면 삼공주의 출신국가, 도래방법, 도착지, 삼신인의 서열 등에 차이가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혼인지 설화의 이(異)설 분류표

	〈고려사〉계	〈영주지〉계	온평리 설화
세 공주의 출신지	일본국	벽랑국	금관국
표착한 곳	온평리	금당(조천리)	화성개(온평리)
도래 방법	목함 속의 석함에 담겨서 옴	새알 모양의 옥함에 담겨서 옴	꽃상자에 담겨서 옴
형제 서열	없음	없음	나무에 오르기

출처 : 문무병(1990)을 연구자가 재구성

삼공주의 조천 도래설과 관련하여 온평리의 <본향당 본풀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온평리 본향당 본풀이>에 의하면, 본향당신은 “명천자 孫” 또는 “서울 정승의 딸”인데 큰 딸은 조천리, 둘째 딸은 김녕리, 셋째 딸은 온평리로 들어와 당신으로 좌정했다고 한다.

<영주지>계의 문헌이나 온평리의 <본향당 본풀이>를 보면 삼공주의 조천도래설이 나름의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온평리 도래설이 보다 타당성을 인정받는 것은 마을 곳곳에 있는 지명이 혼례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과 주거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화성개 근처에서 돌칼이 발견되고, 혼인지의 궤에서 신석기 유물을 발견한 점 등은 온평리의 주거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문무병(1990)은 온평리의 설촌연대에 대해 1500년 전 혈거생활을 하던 토착세력(삼신인)이 이주한 농경세력(세 공주)과 결합하였고, 주변 마을의 설촌 역사와 당의 분화 과정을 통해 약 750년 ~ 800년 전에 마을이 형성되었을 것이라 하였다. 혼인지 동굴유적에서 출토된 무문토기가 철기시대(AD 1~300년)의 가야국, 경상도 해안지역의 토기와 유사한 점을 들어 해당 시기를 탐라국 건국시기로 해석하기도 하였다.⁸³⁾

마을의 지명을 살펴보면 연혼포, 열운이, 흰죽 등 혼례와 관련된 용어들이 많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온평리가 토착세력과 도래 세력 간의 결합과 관련이 있다는 설이 점차 설득력을 얻게 되었고, 근래에 올수록 ‘온평리’나 ‘열운리’라는 지명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83) 문무병(1990), 「마을의 설촌과 당본풀이 -성산을 온평리의 경우-」, 『백록어문』 7,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34.

제 4 장 정체성 형성의 관점에서 본 제주신화 축제

제 1 절 제주신화 축제의 현황과 의미

2018년을 기준으로 제주에서 열린 제주신화 축제는 총 8개로 집계되었다. 제주도청과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2018년에 보도된 축제 홍보 기사를 종합하여 조사한 축제 목록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표 5〉 제주신화 관련 축제 현황 (2018년 현재)

	축제명	회차	기간	주최	주관	장소
1	탐라입춘굿 놀이(입춘굿)	-	2.2 -2.4	제주시	제주민예총	제주목관아와 구도심 일대
2	영등바람축제 (영등굿)		3.16 -3.30	문화재청, 제주시	(사)국가무형 문화재 제주칠머리당영 등굿보존회	한수리, 귀덕리, 함덕리, 하례리 및 건입동 칠머리당
3	설문대할망 페스티벌	제 12회	5.1 ~5.31	돌문화공원 -관리소	민·관합동 -추진기획단	돌문화공원 일원
4	송당 마불림제	-	8.23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문화예술 -재단, 송당리	송당리 일원
5	온평혼인지 축제	제 9회	10.20 -10.21	온평리 -마을회	온평리 마을회	성산읍 온평리 일원
6	제주신화 페스티벌	제1회	10.26- 10.28	JDC	JDC	신화역사공원 및 서귀포 일원
7	제주신화 등축제	제 1회	11.9- 11.11	서귀포시	예래생태문화 -마을위원회	예래생태체험관일대 (대왕숙천포함)
8	건시대제	1526년 ~	12.10	삼성재단	삼성재단	삼성혈

자료 : 연구자 재구성

* 회차에 ‘-’로 표시된 축제는 전통적인 제의로 정확한 회차는 알 수 없으나 대한민국 건국 이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다.

** ()는 축제명이 의미하는 제의 및 행사명을 병행 표기한 것이다.

이 중 ‘건시대제’의 경우 제주도 전체와 관련된 의례임에도 삼성재단 중심의 행사 특성이 강해 개방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부인의 참관이 가능하고, 지역의 핵심 지도층 일부가 참여하는 행사이지만 고·양·부 집안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된다. 연구대상에서는 제외되었지만 ‘건시대제’는 제주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현재까지 제주의 정체성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지역민들의 참여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과 관련 축제들과의 연대가 부족하다는 점은 탐라개국시조의 의미를 몇몇 집안의 조상신 개념으로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탐라의 개국 신화와 관련이 있는 장소에서 제주도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며 치루는 행사인 만큼 그 가치를 제대로 계승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참여의 범위와 내용이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현재 제주의 인적 구성비를 고려하여 보다 열린 의례로 만들어가고, 미래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활동들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⁸⁴⁾

〈표 6〉 제주지역 10대 성씨 구성비 (2015년 현재)



출처 : 통계청(<http://kostat.go.kr>)

‘제주신화등축제’와 ‘제주신화페스티벌’은 2018년 처음 개최된 축제들이다. ‘제주신화등축제’는 예래동 주민을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하며, 제주의 마을신화를 등으로 형상화하여 전시하는 축제이다. 예래동에 전해져 오는 사자와 범섬 이야

84) 2015년, 호남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제주의 성씨 구성비에서 고씨·양씨·부씨의 비율은 약 11.1% 정도이다. 당시 세 성씨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었다는 점과 2010년 이후 2018년까지 이주민의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는 그 비율이 더 감소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기를 알릴 수 있고, 다른 마을의 신화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신화와는 관련이 없는 다른 마을의 홍보성 등이 전시되는가 하면 특산물 판매장이나 체험부스들은 해당 축제만의 특성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생태트래킹을 제외하고는 특색 없는 프로그램들로 일정이 채워져 있어 향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JDC에서 주최한 ‘제주신화페스티벌’은 화려한 출연진과 다양한 프로그램 등으로 주목을 받았다. 주최 측은 홍보물과 언론 보도를 통해 다양한 제주의 신화를 소개하고, 신화 속에 깃들여 있는 제주인들의 삶의 방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장소성의 문제, 제주신화를 오락적 소재로 활용하는 수준의 프로그램, 미흡한 콘텐츠 등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게다가 축제를 앞두고 홍보프로모션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제주신화를 신화월드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냈다.⁸⁵⁾

<탐라입춘굿놀이>는 입춘을 맞아 관덕정 일대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심방이 중심이 되어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는 굿놀이이다. 제주의 <입춘굿놀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구간’이라는 독특한 풍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신구간은 탐라시대부터 전해져오는 것으로 탐라의 1만 8천 신이 하늘로 올라가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고 내려오기까지의 기간이다. 대한(大寒) 후 5일에서 입춘(立春) 전 3일로 이 때에는 평소 꺼리던 일을 해도 동티가 나지 않는다 하여 이사나 집수리 등이 집중적으로 행해진다. 최근에는 신구간과 상관없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제주에서는 신구간에 이사를 하는 사람이 많아 부동산이나 가전제품 매장 등의 매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입춘은 바로 이 신구간이 끝나고 신들이 새로운 임무를 시작하는 때이며, 제주에서는 이 날을 새철 드는 날이라고 한다.

<영등바람축제>는 제주의 <영등굿>을 대중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여러 마을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영등할망신화와 관련된 행사들을 진행한다. 전체적으로 연결성이 크면서 마을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어 네트워크형 축제의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85) 파이낸셜 뉴스, 2018년 10월 26일자, “제주신화월드, 신화페스티벌 ‘편편’ 이벤트 진행”, (<http://www.fnnews.com>)

제 2 절 연구대상 축제의 분석과 결과

축제를 진행함에 있어 해당지역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가는 정체성 형성의 기준 중 주체성과 관련이 있다. 자발성이 없는 경우 주체적인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기 힘들뿐더러 참여 과정을 통해 지역 정체성 형성을 위한 내집단 의식도 생기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축제의 취지와 특성을 통해 축제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주체가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 가치는 주요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축제가 진행되는 공간이 신화의 원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장소가 가지는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3개의 축제가 어떠한 취지로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각 축제 참여자의 주체성, 축제 내용과 장소에 따른 진정성을 정체성 판단의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1. 설문대할망페스티벌

1) 축제 개요

2007년 1회를 시작으로 2018년에 12회를 맞이하였다. 2014년에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애도의 의미로 행사를 연기하다가 8월에 설문대할망제 문화행사, 신화세미나로 간소화하여 개최하였다. 2015년에는 다른 해보다 축제 홍보를 앞당겨 시작하였으며 무료입장 기간도 5월 1일에서 31일까지로 대폭 확대하였다.

주최 측이 밝힌 축제의 취지는 “설문대할망을 널리 전파하고, 제주의 정체성과 향토성, 예술성을 담은 세계적인 신화행사로 발전시켜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설문대할망페스티벌>은 설문대할망을 전파하고, 제주의 색깔을 살린 문화관광 콘텐츠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되기 위해 개최된 축제라고 할 수 있다.

축제는 사전행사와 5월 15일부터 시작되는 본 행사를 포함하여 5월 한 달간 제주돌문화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 기간 동안 제주섬을 만든 설문대할망을 기리는 ‘설문대할망제’와 다양한 행사를 통해 설문대할망 신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신화의 정체성과 가치를 알리는 취지에서 본 행사나 핵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날짜에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설문대할망페스티벌>은 제주도에서 제주신화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행사이지만 다른 지역 단체들의 참여비중이 높다. 특히 영성단체들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실제 그와 연관된 프로그램의 비중이 큰 편이다. 명상과 요가, 관련 음악제 등의 비중이 높고,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관련 단체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축제 진행에 필요한 비용은 도예산 등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집행한다. 2017년에는 6천만 원이었던 축제 예산이 2018년에는 1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주최 측은 축제 출연단체나 개인이 재능기부의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예산 규모에 비해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 편이라고 설명하며, 발간 자료를 통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표 7> 예능기부자 명단 및 감사글

2017 설문대할망 페스티벌
예능기부로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능기부해 주신 분들	
대표자 및 진행자	참여 행사 및 주관처
사회 : 강득희 (설문대할망학회 전문위원)	■ 2017 설문 대(設問 大) ? II 설문대할망신화와 모성성 : 생명살림과 회복 (자유) (사) 설문대할망학회
김운수 총괄감독 사회 : 허남준 제주대 교수	■ 제2회 설문대할망 국 페스티벌 - 제주의 국 놀이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국가무형문화재 제71호)
진행 : 이창이, 채경선	■ 제3회 설문대할망상용악제 (1부, 2부) (사)한국아나바다마라가령상용악회 참여국 : 한국, 러시아, 인도, 타이완, 중국, 독일, 프랑스 등
김영민 (제주 43 연무소장 구별비니루(가수) 신동호 (한국장애인복지예술원 이사장)	■ 제3회 설문대할망상용악제 (2부) ■ 설문대할망 시와 시미션으로 볼라네다 ■ 제주 시의 노래, 길에서 만난 사람들 ■ 암마림 공연
고성욱 명창 양호성 대표	■ 설문대할망 소리회 ■ (사)전통예술공연개발원 마로팀
자부담으로 행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	
대표자 및 진행자	참여 행사 및 주관처
장광별 예술감독	■ 제2회 제주국제축출출출제 제주국제축출출출제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참여국 : 한국, 프랑스, 홍콩, 일본 모로코 등
이은경 지휘자	■ 제3회 설문대할망상용악제(2부) 한국어린이요들합창단 (이은경과 알프스요들 친구들)
재용스님	■ 다례제, 제주차인회, 법연회
삼규호 (제주국제대학교수) 응우옌 비 박변 (Nguyen Thi Bich Van) 관장	■ 베트남 국시연 및 여성박물관 소장품 전시 ■ 베트남 여성 박물관
세계여성명화그룹(MPG)	■ 설문대할망명화포럼 및 경기 프로그램
범하늘 지진이 이소현	■ 설문 대 (設問 大) ? 와 함께 하는 범하늘 행사
강경희 씨클댄스 지도자	■ 제주씨클댄스팀과 함께 하는 커뮤니티 씨클댄스

출처 : 제주돌문화공원,
(<http://jeju.go.kr/jejustonepark>)

2) ‘주체성’의 측면에서 본 <설문대할망페스티벌>

<설문대할망페스티벌>은 제주에서 행해지는 제주신화 축제이지만 다른 지역에서 오는 참여자의 비중이 많은 행사이다.⁸⁶⁾ 제주돌문화공원은 축제 등 중요한

86) 주최 측에서 말하는 핵심프로그램의 진행자나 주관 단체들의 비중이 제주도 내의 단체나 개인보다 다른 지역 소속이거나, 전국 단위 단체의 제주지부인 경우가 더 많았다.

행사 때를 제외한 시기에는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도민할인제가 적용되지 않는 곳으로 관람객 중 도민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⁸⁷⁾ 그럼에도 주최 측에서 언론과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한 내용을 보면 도민들의 축제 참여율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의 단체나 개인의 비중이 크고, 제주 지역의 참여자라 하더라도 관련 단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역정체성의 주체인 주민들의 참여와 주체성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그 결과는 보통 이하의 수준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주최 측에서 도민들의 참여가 부족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언론을 통해 도민들의 관심을 호소하고, 자발적 참여자를 늘리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보다 주체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⁸⁸⁾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가운데 축제에 참여하는 단체나 개인들의 주체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제주돌문화공원에서 발행한 자료집이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많은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재능과 시간, 비용을 들여 축제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제주신화 축제의 정체성에 자발적 외부 참여자들의 주체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3) ‘진정성’의 측면에서 본 <설문대할망페스티벌>

(1) 내용 진정성

2015년 언론에 보도된 제주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임한준)의 기고문을 보면 <설문대할망페스티벌>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도민들의 관심부족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로 언급하였다.⁸⁹⁾ 조사기간인 2016년 이전에 치러진 행사들에 대한 아쉬움을 표한 것이었지만 그 후로도 축제의 내용은 크게 변한 것이 없

87) 제주돌문화공원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였음(2019년 5월).

88) 2017년 3월 20일자, <2017 1차 돌문화공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참고.
(<http://jeju.go.kr/jejustonepark>)

89) 2015년 6월 3일자, 임한준, <제주돌문화공원, ‘5월 설문대할망 페스티벌’을 마치면서>, 뉴스제주 기고문.

어 도민들의 관심이 급격히 증가했을 가능성은 회박해 보인다.

2016년 시작된 ‘국제 즉흥춤’을 비롯해 ‘국제 명상 음악제’, ‘국제 굿 문화제’ 등 국제적 차원의 행사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축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실제 설문대할망 신화와 연결되어 지역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프로그램의 특성상 <설문대할망페스티벌>이 아닌 다른 축제와도 얼마든지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긍정적으로 말한다면 여러 면에서 열려있는 프로그램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축제의 정체성 측면에서는 명확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주최 측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로 공표하고 본행사의 시작이 되는 ‘설문대할망제’가 해당 축제의 정체성을 판단하기에 가장 적합한 소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9명의 여성 제관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설문대할망제’는 설문대할망 신화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이 함께 진행되며 축제 전체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3년간 진행된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설문대할망 신화를 모성애와 헌신이라는 틀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를 여성성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것, 제의에 여성만이 제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설문대할망 신화가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탐라시기 지역 주민들의 대표적인 축제는 무속의례였다. 본향당 중심의 당굿은 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삶을 공유하게 만드는 구심점 역할을 했다. 남녀노소가 함께 신화를 공유하고 자신들의 삶을 신화의 거울에 비쳐 보며 함께 정체성을 형성해 갔을 것이다. 그러나 유교 중심의 조선은 탐라의 정체성을 억지로 벗겨내려 했고, 그 영향으로 함께 어우러져 삶을 이어갔던 축제가 남성 중심의 포제와 여성 중심의 당굿으로 분화된 것이다.

연구자는 현재 ‘설문대할망제’의 제의 방식이 보편적인 포용성과 창조적 가능성의 의미로 접근해야 할 설문대할망의 의미를 축소해버리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남녀가 함께 지역정체성을 형성해가던 축제의 마당을 남성과 여성의 영역으로 갈라놓았던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모성애와 여성이라는 틀 안에서 벗어나 보다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차원으로 해

석의 지경을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

설문대는 자연을 창조해내는 존재였고, 결국 자신이 만든 자연 그 자체로 돌아간 것이다. 이는 제주인들의 삶을 면면히 품어주던 태곳적 자연 그 자체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런 이유로 핵심 프로그램인 설문대할망제는 남녀노소의 틀을 넘어서야 한다. 중국의 반고신화를 보면 반고가 죽을 때 자연현상으로 변화하였다고 하여 반고를 지구 자체로 해석하기도 한다. 설문대의 죽음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당할 듯하다.

<설문대할망페스티벌>은 핵심 프로그램인 ‘설문대할망제’를 비롯해, ‘탐 썰기’ 곳 문화제, 워크샵, 음악 공연, 전시회, 요가와 명상 등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지난 3년간의 축제 프로그램 일정표는 다음과 같다.

〈표 8〉 2016년 제10회 설문대할망페스티벌 주요 프로그램 일정표

일시	행사명	장 소	프로그램 내용
3.13(일) 09:00-18:00	설문대할망전 시관 기공 축원식 및 기념행사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 제주도민의 안녕과 설문대할망전시관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한 특별 축원행사 (주관: 원불교 제주교구)
15:00-16:00		설문대할망전시관 관 예정지	▷ 설문대할망전시관 건립 예정지 지신밟기 (주관: 설문대할망 소리회)
4.7(목) 17:00-18:00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 인증사업	탱고 올레 스튜디오	▷ 제1회 제주 국제 즉흥춤 축제
4.8(금) 15:00-20:30		어머니의 방 설문대할망 제단 물장오리 상징연못 하늘연못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 자연과 함께 하는 생태 즉흥춤 공연 (주최/주관: 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 제주돌문화공원/제주국제즉흥춤사무국)
5.1(일) 10:00-17:00 5.2(월) 09:00-17:00	설문대할망 굿페스티벌	설문대할망제단	▷ 제주도 발전과 제주도민 무사안녕 기원 (주관: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5.3(화) ~5.31(화)	제2회 “제주를 꽃피우는 설문대할망” 어린이들의	오백장군갤러리 6-7전시실	▷ 어린이들의 설문대할망 그림 전람회 (주관: ASHA-진정한 자기치유예술)

	전람회		
5.12(목) 10:00-17:00	설문대할망 워크샵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 설문 대(說問 大)? 설문대할망 신화와 모성성, 크게 묻다 (주관: 삶의예술문화원)
5.13(금) 14:00-16:30	설문대할망 평화극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 사전공연 「평화의 꽃이 피었습니다」 ▷ 세계평화프로젝트 - 설문대할망 평화극 「너희, 꽃봉오리들아」 (주최/주관: 세계평화프로젝트 극단<The Moon>, 무용단<BI-CHUM>) (후원: IWPG-세계여성평화그룹)
5.15(일) 09:00-10:00	설문대할망제 식전행사	주차장 → 설문대할망제단	▷ 주차장 입구 설문대할망 돌손 앞에 집결 맨발路, 성곽 위를 지나 매표소 앞, 전설의 통로를 지나 설문대할망제단 앞까지 행진 (주최/주관: 제주돌문화공원)
5.15(일) 10:00-12:00	설문대할망제 본행사	설문대할망제단	▷ 2016 설문대할망제 강연과 제의식 - 제주섬 창조여신인 설문대할망의 거룩한 뜻과 모성애를 기림 ▷ 설문대아리랑 소리 및 무용공연 ▷ 귤근(고사리 뿌리)죽 맛보기 (주관: 제주돌문화공원)
5.15(일) 10:00-13:00	제주전통차 및 제주전통음식 체험행사	설문대할망제단	▷ 제주전통차 시음 및 제주전통음식 체험 - 빙떡 만들기 및 고사리뿌리죽 체험 (주관: 제주차인회)
~ 5.15(일) 10:00-17:00	설문대할망 그림 치유	신화의정원 2코스 숲길	▷ 공원내 숲길에서 자연물을 활용한 ‘만다라’작업을 협동작업으로 진행 (주관: 이마고 미술치료연구소)
5.15(일) 12:00-17:00	「설문대할망, 스스로-되기」 공연	설문대할망 제단 주변	▷ ‘설문대할망제’와 ‘스스로춤’이 공유하는 자연, 모성, 영성, 치유의 주제 하에 이를 각각의 형식으로 구성 표현 ▷ 설문대할망 상징 조형물 제작 ▷ 관객과 함께 하는 서클댄스 ▷ 스스로춤 공연 「성 性」 (주관: 김기인춤문화재단)
5.14(토) 18:00-20:30	제2회 제주설문대 국제명상음악 제	(1부) 하늘연못	▷ 설문대할망의 제주창조를 주제로 한 명상음악 공연 ▷ 도민과 관람객이 함께 하는 요가 명상
5.15(일) 18:00-20:00	(주관: 길에서 만난 사람들,	(2부)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 바이얼린 독주회, 소프라노, 대금 연주 ▷ 도민과 관람객이 함께 하는 요가 명상

5.16(월) 18:00-20:00	한국아난다마 르가명상요가 협회)	(3부)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 명상이야기와 명상음악
5.15(일) 14:00-17:00	제주돌문화 대담 프로그램	제주돌문화공원 일대	▷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기획의도 ▷ 명상의 길따라 2, 3코스 걷기 ▷ 우리들의 탑 쌓기 (주관: 시 하나 노래 하나)
4.29(금) ~ 6.28(화)	김두례展 - 삶과 꿈, 신화이야기	오백장군갤러리 1-5기획전시실	▷ 설문대할망신화 모티브와 오방색으로 표현한 작품 전시 (주관: 제주돌문화공원)
5.21(토) ~ 5.22(일) 09:00-18:00	설문대할망 신화지 답사	제주도 일원	▷ 돌문화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제주의 설문대할망 신화지를 찾아 제주역사 문화를 함께 배우는 프로그램 • 1일차: 돌문화공원 - 제주동부지역 • 2일차: 한라산 영실 - 윗세오름 - 어리목 (주관: “제주돌문화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 운영위원회)
6.4(토) ~6.5(일) 19:30-21:00	이루마 콘서트 - 제주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의 제주 공연

자료 : 연구자 재구성



2016년에는 5월 1일과 2일, 14일부터 16일까지 무료입장 기간이었다. 설문대할망의 달인 5월에 핵심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사전 행사나 마무리 행사 일정에 돌문화공원 관련행사나 외부 행사를 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월에는 설문대할망전시관의 기공 축원식 및 기념행사를, 6월에는 이루마 콘서트를 축제와 연계하여 홍보하였다.

〈표 9〉 2017년 제11회 설문대할망페스티벌 주요 프로그램 일정표

일시	행사명	장 소	프로그램 내용
5.1(월) ~ 5.31(수) 09:00-18:00	우리들의 탑 쌓기 체험행사	신화의 정원	▷ 관람객 및 행사 참여자들의 개인적 인 염원을 담은 오백장군 상징 돌탑 쌓기
5.1(월) ~ 7.2(일) 09:00-18:00	“뿌리깊은 여신” 화가 양광자展	오백장군갤러리 기획전시실	▷ 한지에 먹과 유화로 그린 양광자 제주신화 기획전시

5.6(토) 14:00-16:00	김은석과 떠나는 인문학 기행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 ‘仁義와 利의 길, 인문학 기행’ - 제주 문화와 연계된 인문학 특강
5.12(금) 18:00-20:00	2017 제2회 UCLG 문화정상회의 환송 만찬회	돌박물관 야외무대	▷ 300여명이 참석하는 스탠딩 뷔페 형식 (주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방정부 연합-UCLG)
5.12(금) 09:30-17:00	설문대할망 워크숍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 2017년 설문 대(說問 大)? II, 설문대할망 신화와 모성성 : 생명살 림과 회복(치유) (주관: 삶의예술문화원)
5.13(토) 13:30-16:30	제2회 설문대할망 굿 페스티벌	설문대할망 제단	▷ 제주 발전과 제주도민 무사안녕 기 원을 위한 제주 굿 페스티벌 (주관: 제주칠머리당 영등굿보존회)
5.13(토) ~ 5.15(월)	베트남 굿 시연 및 여성박물관 소장물품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오백장군갤 러리 2층, • 굿시연 -설문대할망 제단 	▷ 베트남 사람들의 모신 숭배에 관한 독특한 문화를 소개하고 양국의 유 사한 문화 양태를 즐기고 배우고자 함. 설치물(민간 신앙 관련), 공예품, 복식, 영화, 민간 신앙 시연 (주관: 베트남 여성박물관)
5.14(일) 13:30-15:30	설문대할망을 기리는 설문대 명상 다례제	돌박물관 야외무대	▷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기상과 창조 여신 설문대할망을 기리기 위한 설 문대할망 현공다례 및 명상 다례제 봉행 (주관: 제주차인회)
5.14(일) ~ 5.17(수) 13:00-16:00	2017 설문대 명상 참선	전통초가마을 M동	▷ 설문대할망의 창조성, 모성성을 생 각하며 정성을 모아 향낭, 다기보, 서표, 보자기 등 제작 체험프로그램 (주관: 소연침선예원)
5.14(일) 10:30~20:30 ~ 5.15(월) 09:00-17:00	제3회 설문대 국제 명상음악제(1부)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 설문대할망의 제주창조를 주제로 한 명상음악 공연 ▷ 러시아, 인도, 타이완, 중국, 독일, 프랑스 등 여러 나라 명상 음악가들 의 공연 ▷ 설문대할망제 참여, 명상 (주관: 한 국아난다마르가 명상요가협회)
5.15(월) 09:00-12:00	식전행사 및 본행사	공원 입구 ~ 설문대할망 제단	▷ 식전 행사 (09:00~10:00) ▷ 설문대할망 제(祭) 의식 (10:00~12:00) ▷ 설문대할망 관련 각종 문화예술 공

			연 등 (주관: 제주돌문화공원)
5.15(월) 10:00-13:00	제주전통차 및 전통음식 체험	설문대할망 제단	▷ 제주전통차 시음 및 제주전통음식 체험 ▷ 빙떡 만들기 (주관: 제주차인회) ▷ 귤근(고사리 뿌리) 죽 맛보기 (주관: 법씨대안학교)
5.15(월) 15:00-16:00	스스로춤 : 스스로-되기 2017	하늘연못 및 야외무대	▷ 스스로춤 공연 및 참여형 커뮤니티 댄스 (주관: 김기인춤문화재단)
5.15(화) 18:00-21:30	제3회 설문대국제명상음 악제(2부)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 한국어린이요들합창단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땀띠팀 공연 ▷ 설문대할망, 시와 사미션으로 불러 내다 ▷ 길에서 만난 사람들 영상음악 ▷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 아난다마르가 명상음악
5.16(화) 19:00-20:30	제주 詩의 노래 공연 - 들꽃시인 김순남과 함께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 제주의 토속적인 리듬과 울림을 그 대로 간직하고 있는 시인들의 시를 소재로 한 공연 (주관: 시 하나 노래 하나)
5.20(토) ~ 5.21(일) 09:00-18:00	설문대할망 신화지 답사	제주도 일원	▷ 5.20(토) : 한라산영실~윗세오름~ 어리목 답사 ▷ 5.21(일) : 돌문화공원~동부지역 신화지 답사
5.25(목) 14:00-16:00	설문대할망 평화포럼 및 국제청년평화그룹 걷기대회	갤러리 공연장 및 야외무대	▷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결의안 상정 을 위한 촉구행사 (주관: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국제 청년평화그룹, 국제여성평화그룹, 제 주평화단체연합)
5.25(목) ~5.26(금) 09:00-18:00	제2회 제주국제즉흥춤 축제	야외무대 및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 자연 및 라이브 연주와 함께 하는 즉흥춤 공연 (주최/주관: 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 제주국제즉흥춤축제실행위원회)
5.25(목) 19:30-22:00	설문 대(說問 大)? 와 함께 하는 밤하늘 행사	야외무대	▷ 신화 속 무한한 우주공간을 상상으로 여행해 보는 밤하늘 행사

5.31(수) 14:00-16:00	제주씨클과 함께 하는 씨클댄스로의 초대	설문대할망 제단	▷ 제주씨클팀과 함께 하는 커뮤니티 씨클댄스
------------------------	--------------------------------	-------------	-----------------------------

자료 : 연구자 재구성

2016년에는 5월 본 행사 기간 전과 후에 연계 프로그램들을 수록했던 것과 달리 2017년에는 5월에 진행되는 프로그램만을 축제 홍보물에 수록하였다. 무료입장 기간은 5월 12일부터 5월 31일이었으며, 탑 쌓기, 설문대할망제, 워크숍, 굿페스티벌, 영성과 명상 관련 행사, 전시회 등의 주요 프로그램은 2016년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표 10〉 2018년 제12회 설문대할망페스티벌 주요 프로그램 일정표

일시	행사명	장 소	프로그램 내용
5.1(화) ~ 5.31(목) 10:00-12:00 13:00-16:00	우리들의 탑 쌓기 체험행사	신화의 정원	▷ 관람객 및 행사 참여자들의 개인 적인 염원을 담은 오백장군 상징 돌탑 쌓기 체험행사 (주관: 제주돌문화공원)
5.4(금) ~7.1(일) 09:00-18:00	오권준 기증사진전	오백장군갤러리 1-5기획전시실	▷ 제주거문오름용암동굴, 그 심연의 표정 (주관: 제주돌문화공원)
5.5(토) 14:00-16:00	2018화산지질 박물관대학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 제주화산섬이 어떻 맹글아 겨신고 예? (주관: 제주돌문화공원)
5.12(토) 10:00-12:00	하늘연못에 손을 담그다	하늘연못	▷ 미세전류 치료기를 활용하여 하늘 연못을 치료수로 만들기 ▷ 점다커피 시연회 (주관: 삶의예술문화원)
5.12(토) 14:00-17:30	돌문화공원 신화 세미나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 제주에서 할망을 묻다 (주관: 탐라신화연구회)
5.13(토) 18:30-20:30	제4회 설문대 국제 명상음악제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 인종과 국가를 뛰어넘어 하나의 지구가족을 건설하고자 하는 마음 과 설문대할망의 제주창조를 주제 로 열리는 세계 명상음악가들의 음 악제 (주관: 한국아난다마르가 명상

			요가협회)
5.14(월) 09:00-17:30	워크숍: 2018 설문 대(說問 大)? III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 설문대할망 신화와 모성성 - 생명 살림과 치유 (주관 : 삶의예술문화원)
5.15(화) 09:00-13:00	2018 설문대할망제	설문대할망제단	▷ 창조여신인 '설문대할망'의 거룩한 뜻과 모성애를 기리는 의식 (주관: 제주돌문화공원)
5.15(화) 10:00-13:00	관객과 함께 하는 설문대 아이랑 공연	설문대할망제단	▷ 설장구, 대금 독주, 요들 아리랑, 오카리나 연주, 설문대할망아리랑 공연 (주관: 제주돌문화공원, 설문대할망 소리회)
5.15(화) 10:00-13:00	제주전통차 체험	설문대할망 제단	▷ 제주전통차 및 들차 체험 (주관: 제주차인회)
5.15(화) 16:00-17:00	제4회 스스로춤: 스스로-되기 2018 '0(영)'	오백장군갤러리 앞마당	▷ 제주 돌문화공원 내의 장소적 특 성에 따른 춤의 변화들을 살펴보고 그곳에서 살아 숨쉬는 자연을 만난 다. (주관: 김기인춤문화재단)
5.15(화) 13:00-14:00	돌한마을 축제 #1 '설문대 국제 국 문화제'	돌한마을	▷ 본향비녀 및 기메고사: 김영철 심 방 ▷ 황해도 작두굿 공연 ▷ 베트남 국 시연 (주관: 제주돌문화공원)
5.15(화) ~ 5.19(토)	베트남여성박물관 소장물품 전 : 모신송배		▷ 민간 신앙 관련 전시, 공예품, 마네 킹, 복식, 영화, 민간 신앙 시연 등 (주관: 제주돌문화공원)
5.15(화) ~6.14(목)	제주굿 기메전		▷ 당물색: 제주 돌한마을 내의 신당 에 물색을 소박하게 전시 ▷ 심방집기메: 심방집과 관련된 기 메 전시 ▷ 기메전: 제주굿에서 사용되는 여 러 종류의 기메 전시 (주관: 제주칠머리당 영등굿보존회)
5.15(화) 19:00-21:20	제4회 설문대 국제 명상음악제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 한국음악과 서양음악, 영성 음악 과 노래 (주관: 제주돌문화공원, 길에서 만 난 사람들)

5.16(수) 19:00-20:30	허영선 시인과 함께하는 제주의 詩노래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 시와 노래 (주관: 시하나노래하나)
5.17(목) 19:30-22:00	설문대와 함께 하는 돌이 빛나는 밤에	신화의정원 어머니방	▷ 인공조명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돌문화공원 안에서 자연그대로의 밤 의 세계를 다양한 감각으로 경험 (주관: 밤하늘지킴이, 범씨학교)
5.18(금) 09:00-17:30	돌한마을 축제 #2 '설문대 국제 국 문화제'	돌한마을	▷ 제주와 한국의 굿놀이 세미나 ▷ 충청남도 두레농악 ▷ 제주의 굿놀이 (주관: 제주칠머리당 영등굿보존회, 한국무속학회)
5.19(토) 18:00-19:00	설문대할망 무용 공연 '끝나지 않는 바람'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 제주섬의 창조여신 설문대할망에 게 제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고 제 주를 아픔 없이 다시 한 번 재창조 해주시기를 기원하는 춤으로 기획 하여 공연 (주관: 나무꽃)
5.25(금) 14:00-16:00	세계평화선언 5주년 기념행사 및 '전쟁종식 평화걷기대회'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 세계평화선언 5주년 기념행사 국 제청년평화그룹걷기 및 지구촌 전 쟁종식 평화 결의안 상정을 위한 촉구행사 (주관: 국제청년평화그룹, 세계여성 평화그룹)
5.26(토) 15:00-16:00 17:00-18:00	중국무형문화재 초청 공연 '꿈에... [유원경몽]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 유명한 희극가 탕현조가 만든 대표 작 모란정의 극중 한 부분을 공연 (주관: 제주시대)
5.26(토) 14:00-17:00	설문대할망을 기리를 명상다례제	오백장군갤러리 앞마당	▷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기상과 창조 여신 설문대할망을 기리기 위한 명 상 다례제 (주관: 제주차인회)
5.26(토) 09:00-15:00	설문대할망 신화와 제주의 돌문화 교육	제주돌문화공원과 주변 지역	▷ 제주의 역사와 시대별 돌문화, 그 리고 설문대할망 신화를 도민과 관 람객들이 함께 배워보는 프로그램
5.30(수) 14:45-21:00	제3회 제주국제즉흥춤 축제	제주돌박물관 야외무대,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 '즉흥춤'을 제주의 자연유산을 고 유한 형태로 보존하고 있는 제주돌 문화공원에서 개최, 즉흥춤과 자연 환경이 결합하는 생태예술체험

			(주관: 제주국제축제공찬위원회 사무국)
5.1(화) 5.12(토) 09:00-18:00	제주를 수호하는 설문대할망 '어린이 예술가들의 제4회 전람회'	오백장군갤러리 6,7 전시실	▷ 어린이 예술가 그룹의 3인전, 그림 창작을 통해서 자아를 발견하고 자기 권능을 함양해가는 그 과정은 각자 안의 설문대할망이라는 신성을 일깨워가는 여정 (주관: ASHA)
5.15(화) ~5.30(수) 09:00-18:00	설문대와 함께 '날아라 새들아, 에이블 아트展'	오백장군갤러리 6,7 전시실	▷ 제주지역 장애인들의 시각 예술적 표현의 장려와 예술의지를 선보이며, 장애·비장애를 넘어선 '다름'을 예술적 가치로 인정하고 독립된 하나의 예술 장르로 확립하기 위해 기획된 전시회 (주관: 이마고 미술치료연구소,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자료 : 연구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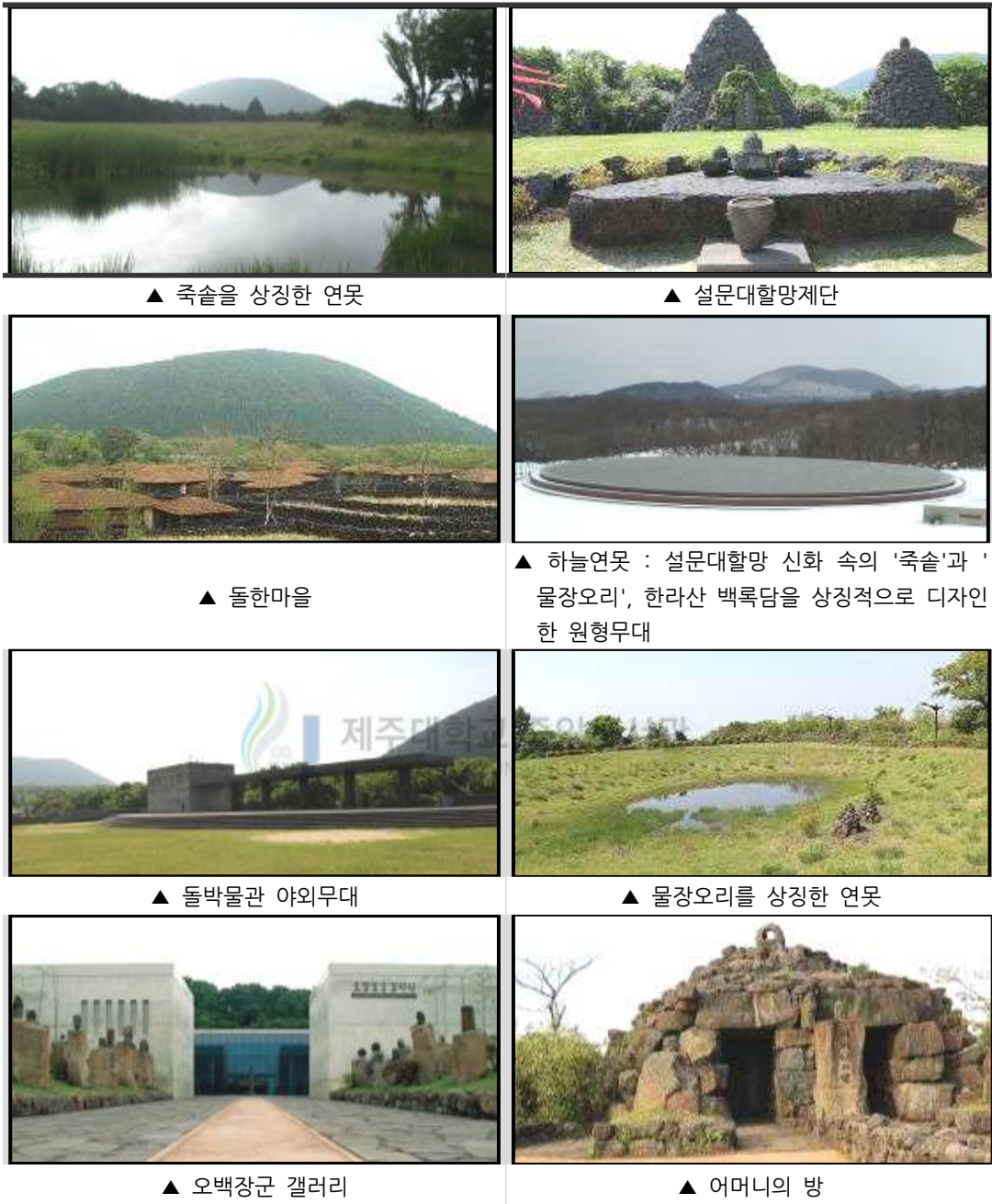
2018년에는 5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16일간을 무료입장 기간으로 하였다. 축제 프로그램은 3년 동안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참여 단체들에만 약간의 변동이 있었고, 신화지 답사 프로그램이 이틀에서 하루로 줄어들었다. 국제교류나 세계평화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해에 따라 추가되는 것은 축제가 추구하는 가치와 장소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주로 외부 단체가 주관하는 것으로 해당 단체의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일정이 변경되기도 하였다.

(2) 장소 진정성

<설문대할망페스티벌>은 제주돌문화공원과 설문대할망신화 관련지 등에서 진행된다. 대부분의 행사가 돌문화공원 내에서 이루어지고, 신화지 답사 프로그램은 이틀에 걸쳐 외부 행사로 진행되다가 2018년에는 하루로 비중이 줄었다.

제주돌문화공원은 민·관이 합작하여 2006년 개원하였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일대에 3,269,731m²(100만평)의 규모로 2020년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설문대할망 신화와 관련된 장소들을 공원 내에 재현을 하거나 새로운 이미지로 조성하였다.

(그림 2) 설문대할망페스티벌 진행 장소



출처 : 제주돌문화공원, (<http://jeju.go.kr/jejustonepark>)

제주돌문화공원 내에 있는 행사 장소들은 설문대할망 신화에 나오는 내용을 형상화한 것이다. 실제 신화의 장소라고 볼 수 없는 인위적인 복제품에 해당한다. 만약 신화와 관련된 실제 장소가 없는 상태라면 인위적이라 하더라도 신화적

장소로서 나름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설문대할망 신화는 제주의 지형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신화소에 해당하는 실제 장소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신화의 원형에 부합하는 장소 진정성을 인정받기 힘들다.

(그림 3) 실제 설문대할망 신화 관련 장소



출처 : 문화재청(www.cha.go.kr)을 연구자가 재구성

주최 측에서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축제 기간 중 2회에 걸쳐 신화지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1회당 모집인원은 30명 정도인데, 중복신청이 가능해 실제 참여 인원은 2회를 합쳐 60명이 되지 않는 규모이다. 이틀간 진행된 답사 프로그램은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으로 나누어 하루씩 진행되었다. 그러나 동부지역

일정은 신화지 답사보다는 환해장성이나 연대, 돌담 등 제주의 돌문화와 관련된 답사활동의 성격이 크다. 서부지역은 영실을 중심으로 설문대할망 신화지 답사가 진행되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신화지 답사 프로그램의 내용은 동일하였다. 일정은 2016년에는 첫째 날에 동부지역, 둘째 날에 서부지역 신화지를 답사한 것과 달리 2017년에는 첫째 날에 서부지역, 둘째 날에 동부지역을 답사하였다. 2018년에는 이틀이었던 답사 일정을 하루로 줄였으며, 답사지는 교래자연휴양림과 제주돌문화공원 일대로 변경되었다. 다음은 2016년 운영된 신화지 답사 프로그램 일정표이다.

〈표 11〉 신화지 답사 프로그램 답사지 (2016년)

	답사지	비고
첫째 날 - 제주 동부지역 5. 21 (토)	구좌 입산봉 (봉수대와 산담)	제주문화
	하도리 발담과 원담, 별방진성	제주문화
	성산일출봉(등경돌)	신화지
	온평 환해장성, 말등포연대	제주문화
둘째 날 - 제주 서부지역 5. 22 (일)	영실탐방로, 어리목탐방로	신화지

출처 : 제주돌문화공원, (<http://www.jeju.go.kr/jejustonepark>)

제주돌문화공원은 설문대할망과 관련된 신화와 제주의 돌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시관과 재현 공간들을 조성해 놓았다.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설문대할망전시관 조성은 지역에서 차지하는 돌문화공원의 위상을 높이고 장소성을 한층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신화 축제에 있어 실제 신화지가 가지는 장소 진정성을 넘어서기는 힘들다. 그런 이유로 신화지 답사는 그 규모를 떠나 매우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신화와 관련성을 찾기 힘든 문화 유적지 답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은 장소 진정성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으로 지적될 수 있다. 게다가 2018년에는 신화지 답사 프로그램의 비중을 줄이고 답사코스에서 대부분의 신화지를 제외시켰다. 신화를 전면에서 내세워 그 의미를 전하는데 의미를 둔다고 축제 취지를 밝힌 만큼 이 부

분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송당마불림제

1) 축제 개요

<송당마불림제>는 송당본향당⁹⁰⁾에서 열리는 <송당리마을제>⁹¹⁾ 중 하나인 <마불림제>를 축제화한 것이다. 제주에서는 마을마다 수호신을 위한 마을제를 지내는데, 유교의 영향에 따라 남성중심의 포제 형식으로 변화된 곳이 있는가 하면 여성중심의 무속의례 형태를 이어가는 곳이 있다. 유교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기 전에는 남녀가 함께 마을굿에 참여하였다. 조천읍 와흘리의 마을제는 남녀 모두가 참여하던 당굿 풍습이 변형되어 전승되는데 여타의 마을처럼 포제를 별도로 행하지 않고, 마을의 남성 대표가 제관의 이름으로 당굿에 참여한다.⁹²⁾

<송당리마을제>는 당굿의 원형이 잘 남아 있으며, 제주에서 무속의례로 진행되는 마을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사회 변화로 인해 점차 당굿이 사라지고 마을 사람들의 인식처였던 본향당이 방치되기도 하는 상황에서 송당본향당은 아직까지 4대 당굿이 모두 지켜지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이곳 역시 사회변화에 따라 단골의 수가 줄어들고, 4대 마을제 중 <신과세제>를 제외한 나머지 의례는 그 무게감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다. 송당은 제주 당신화의 원조라 할 수 있으며, 송당계로 구분되는 당신앙의 영역이 넓어 실제로는 여러 마을과 관련이 있다. <송당리마을제>를 통해 사라져가는 제주도의 당신화와 마을공동체의 의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승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축제 주관단체인 제주문화예술재단과 송당리는 사라져가는 송당마을 4대 제일을 원래의 규모로 복원하여 제주 마을굿의 가치를 전승하고자 하였다. ‘탐라문화

90) 송당본향당은 2005년 4월 6일 제주도 민속문화재 제9-1호로 지정되었다. 소재지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산 199-1이다.

91) <송당리마을제>는 1986년 4월 10일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되었다. 송당리의 마을제는 정월 13일의 신과세제, 음력 2월 13일의 영등굿, 음력 7월 13일의 마불림제, 음력 10월 13일의 시만곡대제로 일 년에 네 번 정기적인 제의를 지낸다.

92) 하순애(2008), 『제주도 신당 이야기』, 제주대학교 출판부, 266.

축제 홍보물도 다양하게 제작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문화유산을 제대로 전승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관람객들이 지켜야 할 예의나 주의사항 등도 알리고 있다. 축제 현장에서도 관람객들이 지역의 전통을 전승하는데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예절 등이 적힌 안내문을 설치하였다. 다양한 홍보물과 안내문은 제주의 무속신화가 여전히 지역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관람객들은 이를 통해 제주신화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느낄 수 있고, 신화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illegible]

- 70 -

송당본향당의 <마불림제>와 오름에서 진행되는 <테우리코사>는 오랜 전통을 가진 의례이다. 그러나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대중성을 보완하여 축제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조사기간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축제 진행의 흐름을 보면 2016년은 그동안 단골을 중심으로 조용하게 진행되었던 수준이었으나, 2017년에는 ‘탐라문화유산 발굴 및 복원 사업’으로 본격적인 홍보를 시작하고 행사의 규모를 확대하였다. 개인적으로 행하던 <테우리코사>를 축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면서 중산간 지역의 <마불림제>와 목축문화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2018년에는 본향당에서 진행되는 <마불림제>를 중심으로 전년에 비해 간소하게 진행되었다.

<송당마불림제> 복원 사업의 예산은 1억 5천만 원으로 세계유산본부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에 ‘탐라문화유산 발굴 및 복원 사업’을 맡겨 집행하였다. 그러나 재단의 전문성과 예산 집행상의 문제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⁹³⁾

2) ‘주체성’ 측면에서 본 <송당마불림제>의 정체성

<마불림제>는 원래 심방과 단골이 중심이 되는 마을제 중 하나이지만 대중적인 축제로 재구성되면서 마을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활동들이 추가되었다. 2017년에는 송당초등학교 전교생이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미술워크숍

(그림 5) 송당마불림제에 전시된
거대 인형



자료 : 송당초등학교 학생들 합동작품(2017년)

‘금백조님은 어디계실까?’를 진행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 금백조 여신을 형상화한 거대인형이 축제 현장에 전시되었다.

마을 주민들이 축제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면서 무속을 믿지 않는 주민들도 <마불림제>를 비롯한 <송당리마을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테우리코사>는 실제 마을에서 목장을 운영하는 목장주들이 집진하여 주체

93) 2016년 11월 23일자, 한라일보, “제주문화재단 일감 몰아주기냐”, (www.ihalla.com)

성의 수준을 높였다.

신앙을 기반으로 전승되었던 의례인 만큼 참여자들의 주체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대중적 축제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고 제주신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향후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현재의 주체성이 지속될 수 있으려면 마을공동체가 함께 그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고, 공감을 통해 노력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3) ‘진정성’ 측면에서 본 <송당마불림제>의 정체성

(1) 내용 진정성

원래 마을공동체 차원에서 진행하던 <마불림제>는 본향당에서 심방과 단골이 중심이 되어 행하던 의례였다. 2016년까지는 그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시대 변화에 따라 간소한 의례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2017년에는 이틀에 걸쳐 진행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가되었다. <송당마불림제>는 축제의 특성상 기존에 전승되어 오던 원형에 얼마나 충실한가가 내용의 진정성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평가요소로 작용한다. 송당리 <마불림제>는 4대 마을제 중 <신과세제>와 함께 선굿으로 진행될 정도로 중요한 의례였지만 최근에는 단골들이 <신과세제>만 참여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가 낮아졌다.

그러던 중 탐라문화 발굴 및 복원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2017년 대중적 축제화를 통해 그간 참여하지 않았던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면서 예년에 비해 행사의 규모가 커지게 되었다. 축제 참여자들에게 대접하는 음식에는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사용하지 않고, 당곳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최소 3일 전부터 네 발 달린 동물의 고기를 먹지 않도록 하는 등 신화의 원형에 맞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본향당에서 <마불림제>가 재차에 따라 진행되는 동안 본향당 주차장에서는 점심 무료 나눔 행사, 굿음식 나눔 행사, 소원지 쓰기, 감물염색체험, 송당마을 신당기행, 당오름 둘레길 걷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전날 행사로 진행된 <테우리코사>도 실제 마을에서 목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진행하면서 목축신에 대한 의례의 의미를 잘 살려냈다. ‘뱃불리기’는 곡식의

씨앗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말이나 소를 이용해 밭을 밟도록 하는 풍습이다. 제주의 농경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마불림제>를 농경과 목축의 풍요 기원으로 해석하는 측면에서 내용 진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에는 원래 하던 것처럼 <마불림제>가 진행되는 하루만 축제를 개최하였다. 따라서 <테우리코사>나 ‘밧볼리기’ 등의 관련 프로그램들은 공식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다음은 2017년과 2018년 진행된 <송당마불림제>의 프로그램 일정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12> 2017년 송당마불림제 프로그램 일정표 (2017. 09. 02 - 09. 03)

날짜	프로그램명	시간	장소	비고
9/2 (토)	테우리코사	11:00-12:00	송당리 산 164-1	
	밧볼리기	14:30, 16:30	송당리 1879 외	밭 밟기 시연
	마을탐방	오후 1시 오후 3시	본향당, 소로소천국당, 솔 덕바위, 아부오름, 금백조 와 소로소천국 석신상	2시간 소요 선착순 15명씩
	체험프로그램 및 전시부스		당 주차장	
9/3 (일)	마불림제	09:00-16:00	송당본향당	
	밧볼리기	14:30, 16:30	송당리 1879 외	밭 밟기 시연
	마을탐방	오후 1시 오후 3시	본향당, 소로소천국당, 솔 덕바위, 아부오름, 금백조 와 소로소천국 석신상	2시간 소요 선착순 15명씩
	마불림제 토크콘서트	12:30 - 15:30	체육공원(송당리 1594)	
	체험프로그램 및 전시부스	1회 : 11시 2회 : 14시	송당마을 일대	

자료 : 연구자 재구성

2017년에는 이틀에 걸쳐 축제가 진행되었다. 본행사인 <마불림제> 전에 <테우리코사>가 진행되었고,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직접 해

설사로 나섰다. 신화지 답사라고 할 수 있는 마을탐방 프로그램은 이틀에 걸쳐 4회 진행되었다.

〈표 13〉 2018년 송당마불림제 프로그램 일정표 (2018. 08. 21)

구분	시간	장소	비고
마불림제	9시~15시 (점심시간 12시~13시)	송당본향당	
송당풍물패 공연	8시30분~9시	송당마을 일원	
점심무료나눔	11시~14시	당 주차장	
공연 (용머리에술단, 아이오나)	15시~17시	당 주차장	
체험부스 (소원지쓰기, 천연염색)	10시~17시	당 주차장	
장터부스	10시~17시	당 주차장	
굿음식 나눔	10시~15시	송당본향당	
당오름 둘레길 걷기	10시~17시	당오름	30분 소요
신당기행	1회 : 11시 2회 : 14시	송당마을 일대	마을해설사와 함께 하는 송당마을 탐방 (현장접수, 선착순 15명)

자료 : 연구자 재구성

2017년에 이틀에 걸쳐 진행했던 축제는 2018년에 다시 하루 일정으로 규모가 줄어들었다. <송당마불림제>와 같이 오랫동안 이어온 축제의 원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잘 전승해가는 것 자체가 내용 진정성을 담보하고 있으므로 현재는 진정성 정도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변화에 따라 관심과 참여가 줄어들면 점차 그 내용에 대한 충실도가 떨어질 수 있고 간소화 과정에서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부대행사와 관련 프로그램들이 신화의 원형보다는 흥미를 끌기 위한 수단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이로 인한 내용 진정성이 낮아질 것은 분명하므로 지속적으로 진정성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장소 진정성

<송당마불림제>가 진행되는 ‘송당본향당’은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 제 9-1호로 지정되었으며 당오름 입구에 위치해 있다. 마을의 성소로 송당본향당보존회가 중심이 되어 방문객들에게 본향당에서 지켜야 할 내용들을 알리고 있다.

아부오름(앞오름)에서 진행된 <테우리코사>는 전통적으로 목축이 행해졌고, 현재도 목장이 운영되는 곳이다.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인 ‘신당기행’은 마을해설사와 함께 마을길을 걸으며 마을공동체의 생성과 변화 과정을 마을의 신화와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땃볼리기’와 그 외의 프로그램들은 당주차장이나 체육공원 등을 비롯해 마을 일대에서 진행되었다.

(그림 6) 송당마불림제 프로그램 진행 장소

마불림제와 송당본향당		
신당기행 지도와 해당 코스 (금백조와 소로소천국 석신상)		
아부오름과 테우리코사		

자료 : 연구자 재구성

‘송당본향당’ 자체가 제주신화의 구심점과 같은 곳이고, 핵심 프로그램들이 신화의 원형에 맞는 장소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을 통해 <송당마불림제>는 장소 진정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축제의 사례라 할 수 있다.

3. 온평혼인지축제

1) 축제 개요

<온평혼인지축제>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 혼례 장소인 점을 부각시켜, 제주 전통 음식과 혼례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제주의 고유한 잔치축제를 만든다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2010년 11월 9일에서 12일까지 4일간 온평리 주민이 주최하고 주관하는 순수 민간축제로 시작되어 2018년까지 9회를 진행하였다. 1회에는 농촌희망재단의 ‘농산어촌 마을축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일부 예산을 지원받았고, 때에 따라 지원 단체가 달라지기는 했으나 마을 주민들이 주최하고 주관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다.

2010년 1회를 개최하면서 축제위원장인 정성충 온평리장(축제위원장)은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결혼이 이뤄진 혼인지를 소재로, 가장 제주다운 관광 이벤트로 엮어냄으로써 혼인지를 전통혼례의 명소로 조성하고 올레꾼과 관광객들도 적극 유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혼인지축제위원회 관계자는 “제주의 농경과 목축문화의 시초를 담고 있는 혼인지는 제주인과 외래인과의 최초의 국제결혼이 성사된 곳이라는 점 등 많은 스토리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라며 “제주의 전통혼례와 제주 고유의 목축문화를 알릴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⁹⁴⁾

2010년 1회 개최에 앞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실제 행사 자료들을 살펴보면 <온평혼인지축제>가 당초에는 <2010 제주올레 걷기축제>와 연계하여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제주올레 걷기축제>는 행사의 규모가 크고 당시 1~5코스까지 92km의 올레를 걷는 축제였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온평리의 <혼인지축제>

94) 2010년11월 9일자, 제주의 소리. “제주 최초 국제결혼 어디서?...제1회 혼인지 축제 개막” 참고.

뿐만 아니라 많은 마을에서 적극적인 마을홍보에 나섰다. 개최시기를 정하는데 있어 축제에 대한 홍보 전략이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축제 예산은 외부 지원과 마을에서 일부 비용을 자부담하여 집행한다. 2016년에는 농촌축제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8백만 원, 지방비 8백만 원, 자부담 8백만 원으로 총 2천4백만 원이 집행되었다.

2) ‘주체성’ 측면에서 본 <온평혼인지축제>의 정체성

2010년 1회를 개최하면서 축제관계자들은 <혼인지축제>가 마을 중심의 순수 민간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축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1300여 명의 주민들이 축제의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함께 하는데,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혼례행렬에는 마을 주민 250여 명이 참여한다.

축제기간 진행되는 프로그램 대부분을 마을 주민들이 진행하며 그들이 축제 기획자이자 연기자이고 행사 보조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간혹 초대가수나 공연팀이 외지에서 오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은 지역 내에 있는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지역 내에 있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축제에 공연팀으로 참여하였다. 다양한 연령층의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주체성의 측면에서는 높음 수준으로 판단된다.

3) ‘진정성’ 측면에서 본 <온평혼인지축제>의 정체성

(1) 내용 정체성

주최 측에서 강조하는 혼인지 축제의 특징은 ‘전통 혼례’와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결혼’이다. 그러나 <탐라개국신화>를 모티브로 진행하는 축제임에도 혼인지 신화의 원형이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조선시대의 혼례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어 탐라국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중심 프로그램인 전통혼례에 서민혼례라는 별칭을 붙이기도 하였는데, 혼인지 신화가 서민들과 관련된 개념이 아님에도 시대상황과 맞지 않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신화의 의미를 왜곡하는 실수도 범하고 있다. 건국신화의 주인공들과 관련된 신화 축제에서 양반이니 서민이니 하는 구분을 덧씌우는 것은 현대 사회의 의미로 볼 때에도 맞지 않고, 조선시대의 사회구조를 재현해냄으로써 잘못된 인

식의 틀을 고착화 시킬 수 있다.

탐라개국신화를 모티브로 하는 축제는 적어도 삼국시대나 그 이전의 모습으로 재현되어야 한다. 역사적 기록들은 차치하고라도 혼인지 일대와 동굴 유적에서 2,000여 년 전에 쓰였을 토기편이 출토된 것으로 미루어 온평리 지역은 2,000여 년 전부터 사람들이 들어와 살았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제주도 산지향 축조공사에서 발견된 오수전은 탐라국의 역사가 적어도 해당 화폐의 제작시기인 기원전 2세기~기원후 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음을 알려준다.⁹⁵⁾ 그런데 개국신화와 관련된 축제에서 핵심 프로그램으로 조선시대 유교의식을 재현하는 것은 내용 진정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결혼이라는 주장도 타당성이 부족하다. 외부 세력이 도래하여 토착 세력과 결합한 것이니 국제결혼으로 해석하는 것은 일면 타당하나 그것이 우리나라 최초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첫째, 삼신인과 삼공주가 혼례를 한 해가 언제인지 주장할 근거가 부족하다. 둘째, 국가의 개념이 성립되기 이전에는 오히려 더 많은 집단 차원의 이동이 있었는데, 토착 집단과 외래 집단 간의 결합은 오늘날의 국제결혼의 맥락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가라는 틀이 지금처럼 정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차원의 이동보다는 집단 차원의 이동과 결합이 보편적이었을 것이고, 이러한 세력 결합의 상당수가 <온평혼인지축제>의 주최 측에서 주장하는 국제결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바다를 통한 도래신화는 탈해신화와 가야신화 등 한국 남부뿐만 아니라 동남아에도 다수 분포하고 있다. 이는 축제 주최 측이 주장하는 우리나라 최초 국제결혼이라는 주장의 타당성을 떨어뜨리는 근거로 적용될 수 있다.⁹⁶⁾

앞서 살펴본 내용으로 보았을 때 <온평혼인지축제>의 내용 진정성은 매우 부적합한 수준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화의 내용에 따라 황루알에서 시작되는 주민들의 행렬이나 신화의 내용을 극으로 재연하는 등의 프로그램 등은 비교적 신화적 원형에 맞게 진행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95) 2014년 2월 9일자, 미디어제주, “중국 한나라 왕망대 화폐는 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나올까”. (<http://www.mediajeju.com>)

96) 현용준(1983), 「삼성신화연구」, 『탐라문화』 2, 탐라문화연구소, 80.

지난 3년 간 진행되었던 <온평혼인지축제>의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4〉 2016년 제7회 혼인지축제 프로그램 일정표

날짜	시간	프로그램명과 내용
첫날 - 가문잔치날 10.29(토)	10:00 - 11:00	▷ 혼인행렬(황루알~혼인지) - 풍물패 길트기/삼신인과 삼공주 결혼식 퍼포먼스 등
	11:00 - 12:00	▷ 식전공연(주무대) - 제주도립무용단 축하공연
	12:00 - 12:30	▷ 개막식 - 축제 개막식(주무대)/청실홍실 퍼포먼스(잔디마당)
	13:30 - 14:30	▷ 열운이혼례(잔디마당) - 다문화가정 혼례, 새이불전달식
	14:30 - 15:30	▷ 공연 1(주무대) - KBS어린이합창단 축하, 무용, 난타
	15:30 - 16:30	▷ 일심동체 율놀이(잔디마당) - 둘이서 던지는 율놀이 대회 ▷ 혼인지길 보물찾기(혼인지일대) - 혼인지길에서 찾는 보물
	16:30 - 17:30	▷ 장작패기대회(잔디마당) - 머슴옷을 입고 장작패기
	17:30 - 20:00	▷ 커플가요제(주무대) - 초청가수(도화진), 느영나영 남·여커플 가요제
둘째날 10.30(일)	10:00 - 11:00	▷ 혼인지길 걷기(혼인지내)
	11:00 - 11:30	▷ 공연 2(주무대) - 난타, 꼭두각시 공연
	11:30 - 12:30	▷ 열운이 혼례 - 다문화가정혼례 및 새이불전달식
	13:00 - 14:00	▷ 공연 3(주무대) - 댄스(라인맘), 어르신 생활체조, 섹소폰 공연, 해녀춤공연
	14:00 - 14:40	▷ 리마인드웨딩 - 금혼식 및 새이불전달식
	14:40 - 15:40	▷ 희망 돌림판 복불복 - 상품을 향해 쏘라!!! ▷ 어부바대회 - 커플간의 이색 어부바대회
	15:40 - 16:20	▷ 패션쇼 - 전통의상 패션쇼
	16:20 - 16:50	▷ 행복콘서트 - 가수 최성수 공연
	16:50 - 17:10	▷ 풍물난장 - 풍물팀과 참가자 모두가 하나로 난장!

	17:10 - 17:30	▷ 폐막식 - 행운권 추첨 및 폐막식
체험프로그램	페이스페인팅 청사초롱만들기 팔찌만들기 캘리그래피	
참여프로그램 (잔디마당 및 혼인지 일대)	장작패기대회 윷놀이대회 어린이연날리기 혼인지길 보물찾기 어부바대회 복불복 돌림판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잔디마당 및 혼인지일대)	잔치밥상 잔치술상 점빵 혼인지 기념품관 수공예품판매전시관	

자료 : 연구자 재구성



<표 15> 2017년 제8회 혼인지축제 프로그램 일정표

날짜	시간	프로그램명과 내용
첫째날 10.21(토)	10:00 - 11:30	혼례행렬 - 풍물동아리-풍물패 길트기
	11:30 - 12:00	식전행사 - 서귀포시립관악단 공연
	12:00 - 12:10	개막식준비
	12:10 - 12:30	공식행사 - 개막식
	12:30 - 13:00	유치원공연 - 삼성어린이집 무용
	13:00 - 14:00	온평초등학교 어린이 공연 - 부채춤, 에어로빅
	14:00 - 14:20	학생난타 - 성산중학교
	14:20 - 15:00	열운이혼례
	15:00 - 15:40	장작윷놀이/보물찾기
	15:40 - 16:10	해녀난타
	16:10 - 17:00	장작패기대회

	17:00 - 17:30	MC PLAY - 풍낭기타
	17:30 - 18:00	커플노래자랑
	18:00 - 19:00	섹소폰연주 - 성주포니아
	19:00 - 20:00	가수축하공연 - 도화진외 2명/이미테이션 김홍국
둘째날 10.22(일)	10:00 - 11:00	전통 혼례
	11:00 - 11:30	해녀춤 - 해녀동아리
	11:30 - 12:00	제스카리더스팀, 드림팀
	12:00 - 12:30	어르신 생활체조 - 생활체조동아리
	12:30 - 13:00	댄스라인맘 - 댄스동아리
	13:00 - 13:30	통기타가수공연 - 정은선
	13:30 - 14:30	투호게임/복불복 게임
	14:30 - 15:30	어린이패션쇼 - 패션쇼/댄스
	15:40 - 16:10	MC PLAY - 제주해녀홍보가수 김은경
	16:30 - 17:00	폐막식 - 행운권 추첨 및 폐막식
체험프로그램	 페이스페인팅 캘리그래피 인물화 그리기 전통혼례 사진 찍기(액자) 우드아트페인팅 한자 손거울 만들기 소라피리 만들기	
경연프로그램	커플 가요제 장작패기 대회 복불복 게임 보물찾기 율놀이대회 등	

자료 : 연구자 재구성

2017년은 2016년과 비교하여 프로그램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 핵심 프로그램인 전통혼례를 비롯하여, 패션쇼나 참여 프로그램 등에서 재현되는 전통은 대부분 조선시대의 양식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표 16> 2018년 제9회 혼인지축제 프로그램 일정표

날짜	시간	프로그램명과 내용
첫째 날 10.20(토)	10:00 - 11:30	혼인행렬 - 풍물패 길트기/퍼포먼스 등
	11:30 - 12:00	식전공연 - 제주도립무용단 축하공연
	12:00 - 12:30	개막식 - 축제 개막식/청실홍실 퍼포먼스
	12:30 - 13:00	공연 - 삼성어린이집/온평초등학교
	13:00 - 13:40	전통혼례 - 리마인드 웨딩 1팀
	13:40 - 14:00	해녀춤 공연
	14:00 - 14:30	공연 - 어르신 생활체조/제스카리더스
	14:30 - 15:30	민속경기 - 제기차기/장작윷놀이/보물찾기
	15:30 - 15:50	해녀난타 공연
	15:50 - 16:20	장작패기대회 - 머슴옷 입고 장작패기
	16:20 - 17:20	커플가요제 - 초청가수(도화진)/커플노래자랑
둘째 날 10.21(일)	10:00 - 11:00	열운이 혼례 - 다문화가정 1팀
	11:00 - 12:00	마을제 재연 - 유교식 마을제 재연/본향제
	12:00 - 12:30	댄스(라인맘) 공연
	12:30 - 13:30	민속경기 - 투호/멍석윷놀이
	13:30 - 14:00	돌림판복불복 - 상품을 향해 쏘라!!!
	14:00 - 14:30	풍납기타 동아리 공연
	14:30 - 15:30	요리경연 - 장금이 선발대회
	15:30 - 17:00	폐막식 - 행운권 추첨 및 폐막식
체험프로그램		페이스페인팅 캐리커처 캘리그래피 전통혼례 사진 찍기(액자) 소라피리 보드게임 - 걱정인형 만들기 우드드림캐츠
참여프로그램		장작패기 대회 멍석윷놀이 보물찾기 투호

	제기차기 돌린판복불복 장작윷놀이 장금이선발대회
--	------------------------------------

자료 : 연구자 재구성

지난 3년간 <온평혼인지축제>의 내용은 전체적인 흐름에 큰 변화가 없었다. 조선시대의 유교식 혼례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부대행사나 참여 프로그램들도 주로 전통놀이 중심이어서 탐라개국신화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였으며 육지부의 민속축제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2018년에는 유교식 마을제를 재연하면서 더욱 탐라의 개국신화와는 거리가 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2) 장소 진정성

온평리는 <탐라개국신화>와 연관된 마을로, 설촌을 거론할 때는 반드시 ‘혼인지’부터 이야기되고 있다. 혼인지는 ‘혼죽’이라 일컬어지는 연못으로, 삼신인(三神人)이 바다 건너 온 벽랑국 세 공주를 맞아 목욕을 하고 혼인을 올렸다는 신화의 장소이다. 근처에는 삼신인과 삼공주가 저마다 신방을 차렸다는 동굴 ‘신방굴’이 있다.

(그림 7) 온평혼인지축제 진행 장소



자료 : 연구자 재구성

축제는 삼공주가 도착했다는 황루알에서부터 본 행사장인 혼인지까지의 행렬로 시작된다. 혼인행렬 후에 본격적인 행사와 참여프로그램 등은 혼인지 일대에서 진행된다. <온평혼인지축제>는 문헌자료를 통해 신화소에 해당하는 장소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장소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장소적 진정성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4. 분석 결과

제주신화 축제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주체성’은 정체성 형성의 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와 실제 축제를 끌어가는 중심축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진정성’은 축제 프로그램의 내용과 장소가 신화의 원형과 의미에 얼마나 부합하느냐에 따른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주신화 축제로서의 정체성이 갖추어졌다고 판단하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지역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였다.

지금까지 연구대상인 축제들을 조사하고 정체성의 판단 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7〉 제주신화 축제 연구 결과 분석표

	주체성	진정성	
		장소적	내용적
설문대할망 페스티벌	△(보통)	△(보통)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보다는 외부 지역 참여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중심이 됨 주최 측에서 도민 참여가 저조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 신화적 장소는 축제 장소인 돌문화공원 외부에 있음 신화지 답사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신화소에 부합하는 장소들을 축제의 한 축으로 끌어들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문대할망에 대해 현재의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 구조로 접근하고 있음 축제 프로그램을 통해 설문대할망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함

송당 마불림제	○(좋음)	○(좋음)	○(좋음)
	심방과 단골이 중심이 되는 <마불림제>에 마을 주민들이 축제 프로그램 참여자로 적극 동참하게 됨	신화의 원형에 부합하는 장소에서 진행됨	신화의 원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행됨
온평 혼인지축제	○(좋음)	○(좋음)	×(나쁨)
	마을 주민 대부분이 준비부터 참여하며, 적극적 참여자의 비중이 높음	신화의 원형에 부합하는 장소에서 진행됨	탐라개국신화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오히려 신화의 의미를 잘못 전달하고 있음

최근 3년간의 결과만을 보았을 때는 <송당마불림제>가 가장 신화의 원형과 의미에 부합하며, 지역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밑바탕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가 제시하는 조건만으로 지역정체성 형성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점은 충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인지하면서, 다른 조건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제주신화 축제의 정체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제 5 장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연구 설계에 따른 조사·분석 과정을 통해 <송당마불림제>가 축제의 정체성 판단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각각의 축제마다 나름의 문제점이 있고, 또 장점들이 있다. 각 축제들이 갖고 있는 장점과 관련 신화들의 의미는 제주의 정체성을 정립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따라서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을 고쳐 나가고, 축제 자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제주신화 축제는 지역정체성 형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송당마불림제>는 대중성을 가미한 축제로 거듭나면서, 사라져가는 문화유산의 전승이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무속의례를 중심으로 전승되어 온 제주신화는 지역민들의 삶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짐작케 한다. 무엇보다 심방들을 통해 전해지는 본풀이는 육지부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신화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어 반드시 전승이 필요한 문화유산이다.

그러나 <송당리마을제>가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없다면 전승의 동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거기에 더해 무속신앙의 측면에서만 <송당마불림제>를 바라본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매우 어둡다. 사회변화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신앙은 빠르게 변화하였고, 현재의 단골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매인심방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이유로 신화의 원형을 지키면서 대중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본행사인 당굿은 신앙의 차원으로 계속 이어가기 힘들 수 있다. 그러나 제주신화가 갖는 의례를 종교의 차원을 넘어 함께 지켜가야 할 지역의 유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수용하는 사회적 틀을 넓혀간다면 충분히 지역정체성 형성의 밑바탕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축제의 장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신화의 원형과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구성되고 성장해야 한다.

<설문대할망페스티벌>은 연구 결과에서 장소적 진정성이 낮게 조사되었다. 신화지 답사 프로그램을 통해 장소의 진정성이 보완되어 ‘보통’의 평가를 받았지만, 2018년에는 신화지 답사의 비중이 줄어들어 향후 장소적 진정성은 ‘나쁨’ 수준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제주돌문화공원은 다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지역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소적 특성을 지녔다. 돌문화공원에서 진행되는 <설문대할망페스티벌>은 넓은 부지에 대자연을 그대로 품고 있기에 장소활용에 있어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해볼 수 있다. 202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설문대할망전시관’은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설문대할망을 더욱 친숙하게 느낄 수 있게 할 것이며, 신화가 주는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생각해볼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자발적 참여 단체가 많다는 점도 이 축제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세계화 시대에 다양한 나라의 단체들이 참여하여 축제를 만들어 가다보면 새로운 시각으로 <설문대할망페스티벌>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많아질 것이라 기대한다.

<온평혼인지축제>는 <송당마불림제>와 마찬가지로 주체성과 장소적 진정성에서 신화적 원형에 부합하는 축제라 평가되었다. 혼인지 신화는 <탐라개국신화>를 남성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력과의 결합을 통한 번영과 상생의 신화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축제의 내용은 신화의 원형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혼인지 신화가 삼을라 신화를 보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주최 측에서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삼을라와 삼공주의 만남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탐라의 개국신화를 조선시대의 유교적 의례에 끼워 맞추는 것은 탐라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관련 자료에 대한 검증과 신화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시대정신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재구성되어야만 한다.

지역정체성은 구성원들의 다양한 정체성들을 묶어낼 수 있는 상징과 이를 구체화시키는 활동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 제주신화는 지역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상징이며 구성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포괄적인 공동체의 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축제는 공동체의 다양한 정체성들을 실제적으로 묶어낼 수 있는 문화공유방식이다. 그러므로 제주신화 축제는 제주라는 상상된 공동체가 실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정체성의 틀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제주의 구성원들이 함께 지향해야 할 보편성에 비추어 지역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주신화 축제들이 정체성 판단의 기준에 맞게 재구성되어야만 한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하여 각각의 제주신화 축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다면적·다층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고쳐 나가고, 나름의 장점들이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 강봉수(2018), 「제주정체성으로써 ‘제주정신’에 대한 연구 성과와 제주문화문법」, 『제주도연구』 50.
- 강영조(1997), 「제주관광종합개발계획(1973)의 경관설계 사상과 실행」, 『농업생명자원연구』 6.
- 강정식(2004), 「서평 - 이수자 지음 『제주도 무속을 통해서 본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 『한국종교연구』 6.
- 국토지리정보원(2010), 『한국지명유래집 전라·제주 편 지명』, 국토지리정보원.
- 김기연(2016), 「유럽과 아시아의 축제 ; 집단 기억의 전승수단으로서의 카니발 현상」, 『한국프랑스문화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6-(1).
- 김순이(2016), 『제주신화』, 여름언덕.
- 김순자(2010), 「‘선문대할망’과 그 別稱」, 『탐라문화』 37.
- 김영순·최민성 외(2006), 『축제와 문화콘텐츠』, 다홀미디어.
- 김운미·김윤지(2012), 「섬 문화로 본 제주 춤의 정체성 -<탐라순력도>와 <입춘굿 탈놀이>를 중심으로-」, 『한국무용사학』 13.
- 김은석(2012), 「역사적 형성물로서의 제주인」, 『제주도연구』 38.
- 김진철(2015), 「신화 콘텐츠의 스토리텔링 전략」,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진하(1982), 「송당 신화의 기원에 대한 고찰」, 『탐라문화』 29.
- 김태연(2018), 「일상의 초월, 경계 넘나들기로서의 축제 - 카니발의 유래와 현대적 의미」, 『인문학연구』 47.
- 김현선(2005), 「제주도 당본풀이의 계보 구성과 지역적 정체성 연구」, 『비교민속학』 29.
- 김현선(2017), 『남방실크로드 신화여행』, 아시아.
- 김화경(2003), 『세계 신화 속의 여성들』, 도원미디어.
- 권태호(1997), 「거인설화의 전승양상과 변이유형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문.

- 권태호(2005), 『한국 구전신화의 세계』, 지식산업사.
- 권태호(2010), 「여성거인설화의 자료 존재양상과 성격」, 『탐라문화』 37.
- 문무병(1990), 「마을의 설촌과 당본풀이」, 『백록어문』 7.
- 문무병(1993),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승규(2010), 「광장, 카니발과 미학적 정치 공간」, 『공간과 사회』 34.
- 박이문(1997), 『문명의 미래와 생태학적 세계관』, 당대.
- 박찬식(2010), 「제주지역의 4월 혁명과 지역사회의 변화」, 『제주도연구』 34.
- 송성대(1996), 『제주인의 해민정신』, 제주문화.
- 요한 하위징아 저, 이종인 역(2010), 『호모루덴스 : 놀이하는 인간』, 연암서가.
- 윤용택(2014), 「제주 생활문화 의식과 정체성」, 『제주 생활문화 100년』, 제주문화원.
- 윤용택(2015), 「제주도민의 정체성과 생활문화 의식」, 『제주도연구』 43.
- 윤인진·황정미(2014), 『한국 다문화주의의 성찰과 전망』, 아연출판부.
- 이수자(1989),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수자(2004), 「제주도의 마불림제가 백중과 상관성을 갖게 된 원인과 그 의의」, 『역사민속학』 19.
- 이수자(2007), 「제주도 ‘송당(松堂) 신화축제’의 의의와 계승의 필요성」, 『구비문학연구』 24.
- 이수정(2012), 「문화재 보존에 있어서 진정성 개념의 속성과 변화 고찰」, 『문화재』 45.
- 이영권(2018), 『새로쓰는 제주사』, 휴머니스트.
- 이정학(2018), 『축제 이벤트』, 대왕사.
- 이학주(2014), 「신화가 가지는 관광자원의 속성 연구-강릉단오제 근원신화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43.
- 이형상 저, 이상규·오창명 [공]역주(2009), 『남환박물 : 남쪽 벼슬아치가 쓴 18세기 제주 박물지』, 푸른역사.
- 임재해 외(2008), 『한국신화의 정체성을 밝힌다』, 지식산업사.
- 앤더슨 저, 윤형숙 역(2002), 『상상된 공동체』, 나남.

- 전경수(1992), 「을나신화와 탐라국산고」, 『제주도연구』 9.
- 조나단 프리드먼(2009), 『지구화 시대의 문화 정체성』, 당대.
- 조현설(2003), 『동아시아 건국의 역사와 논리』, 문학과 지성사.
- 조현설(2006), 『우리신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출판.
- 존 스토리 저, 유영민 역(2011), 『대중문화란 무엇인가』, 태학사.
- 진성기(2006), 『제주도학』, 제주민속연구소.
- 진성기(2010), 『제주의 세시풍속』, 디딤돌.
- 제주특별자치도지사(2018), 『설문대할망페스티벌 2018 기록사진 자료집』, 제주돌
문화공원 관리소.
- 추미경(2003), 「지역축제와 문화정체성 확립, 축제의 차별화와 활성화?」, 『기전
문화예술』 3·4월호.
- 최병길·권귀숙·강상덕·김현돈·한석지·박찬식(1998), 「제주섬 정체성 변화에 관한
비교 연구」, 『제주도연구』 15.
- 탁석산(2000), 『한국의 정체성』, 책세상.
- 하순애(2008), 『제주도 신당 이야기』, 제주대학교 출판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3), 『한국구비문학대계 8-8, ‘삼랑진읍 설화 27’』, 한국정
신문화연구원.
- 허남춘(2011),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 신화』, 보고사.
- 허남춘(2013), 「제주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 연구」, 『탐라문화』 44.
- 현용준(1983), 「삼성신화연구」, 『탐라문화』 2.
- 현용준(1992), 「제주도당신화고」,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 현용준(2005),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 국외 문헌

- Erikson, E. H.(1968), *Identity :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Lee Seung-chal(2016), *The Role of the Festival to Overcome the Regional*

Identity CRISIS in Republic of KOREA : Centering on Andong International Mask Dance Festival, International Journal of crisis & safety, J-INSTITUTE.

Philip Gleason(1983), *Identifying Identity : A Semantic History*, Journal of American History, Oxford University Press.

Rogers Brubaker and Frederick Cooper(2000), *Beyond "identity"*, Theory and Society 29. Kluwer Academic Publishers.

Stuart Hall(1996), *Who needs identity?*, Questions of Cultural Identity, SAGE.

3. 국내 신문 및 인터넷 언론 기사

<경향신문> 2019년 3월 21일자, “외국인정책 이대로 좋은가”

<국민일보> 2018년 12월 20일자, “ 제주시민 절반, 이주열풍에 따른 인구유입 ‘부정적’ 평가”

<뉴스제주> 2015년 6월 3일자, “제주돌문화공원, ‘5월 설문대할망 페스티벌’을 마치면서”

<미디어제주> 2014년 2월 9일자, “중국 한나라 왕망대 화폐는 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나올까”

<제민일보> 2013년 1월 11일자, “갈등만 양산 제주역량 결집 실패[기획=제주 사회 이래도 되나]

<제주의 소리> 2010년 11월 9일자, “제주 최초 국제결혼 어디서?...제1회 혼인지 축제 개막”

<제주의 소리> 2012년 10월 23일자, “이젠 ‘말은 서울로, 사람은 제주로’ 보낸다”

<제주일보> 2016년 10월 25일자, “제주 토박이 vs 이주민, 가치관 차이 크다”

<제주일보> 2018년 4월 24일자, “제주 인구증가율, 전국서 가장 빠르다. 지난 달 말 64만 8497명, 2008년 대비 15.7% 증가 ... 남자가 여자보다 많아”

- <제주일보> 2018년 4월 24일자, “지난해 제주 교통량 8.8%증가, 전국 최고”
- <한국일보> 2016년 8월 22일자, “제주 세계 섬 문화축제 17년 만에 부활”
- <한라일보> 2016년 11월 23일자, “제주문예재단 일감 몰아주기냐”

4. 웹사이트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ict.korean.go.kr) 검색일 : 2019년 3월 21일.
- 삼성혈 (www.samsunghyeol.or.kr) 검색일 : 2019년 3월 16일.
- 서귀포시청 (www.seogwipo.go.kr) 검색일 : 2019년 3월 16일.
- 성산읍사무소 (www.seogwipo.go.kr/local/seongsan) 검색일 : 2019년 3월 28일.
- 송당초등학교 (www.songdang.jje.es.kr) 검색일 : 2019년 3월 27일.
- 제주도청 (www.jeju.go.kr) 검색일 : 2019년 3월 16일.
- 제주돌문화공원 (www.jeju.go.kr/jejustonepark) 검색일 : 2019년 3월 25일.
- 제주문화예술재단 (www.jfac.kr) 검색일 : 2019년 4월 22일.
- 제주시청 (www.jejudi.go.kr) 검색일 : 2019년 3월 16일.
-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folkency.nfm.go.kr) 검색일 : 2019년 3월 21일.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검색일 : 2019년 3월 21일.
- 호남지방통계청 (www.kostat.go.kr/hnro) 검색일 : 2019년 4월 12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feasibility of Jeju Myth festivals as a way of forming regional identity of Jeju.

In Jeju, myths were handed down mainly in the form of shamanism. So the shaman ritual became the scene of the festival to pass on myths. The Kingdom of Tamra was conquered by Goryeo and under the rule of Confucian State of Joseon. During that time, shamanism was strongly oppressed but survived. After industrialization and lifestyle changes, the proportion of shaman rites naturally decreased. But the myth of Jeju still has an impact on the lives of local people.

Recently, it has been reborn as a diverse cultural content. And it has become a story legacy that attracts attention in other parts of the country beyond Jeju-do. For this reason, Jeju myth is one of various factors forming identity, and it is still considered important in regional identity discourse.

The discourse of regional identity is more necessary as the sense of crisis about identity increases. Jeju Island, the only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best tourist destination in Republic of Korea, has experienced many changes in nature and human environment. It's because of openness of the region itself and the rapid increase of migrants since 2010. This situation in Jeju Island has increased the sense of identity crisis, and efforts have been made to establish regional identity in various fields.

This study suggests that 'Jeju Myth Festival' can be a solution in terms of regional identity formation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 in Jeju-do. Jeju myth is well-preserved in its prototype and is reproduced in various cultural contents. Therefore, it became a symbol of local area which native people and migrants can share.

Myth is a familiar story heritage to everyone. Moreover, festival allows

people to participate in directly, and it raises community awareness in a positive way. In other words, the universality and specificity of myths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consciousness of the member through festivals, which are culture-sharing methods with a high degree of openness.

In this study, I analyzed the festivals currently being held to suggest that the Jeju myth festival would be the foundation of regional identity formation. To let the festivals take part in forming regional identity, the identity of the festival itself must be established properly. To confirm this, I examined the Jeju myth festivals in Jeju area. After that, the <Seolmundae Halmang Festival>, <Songdang Mabulrimje>, <Onpyeong Honinji Festival> were finally selected as research objects.

The reasons why these three festivals were selected for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y have been held for more than three years as of 2018, and it is certain that it will be held in 2019 as confirmed by the organizers. Therefore their continuity is ensured.

Second, they affect the whole area of Jeju-do.

And finally, they are representative mythical festivals which are creation myth, myth of nation building and shamanism.

The criteria for analyzing the identity of the festival includes the subjecthood of the local people, the authenticity of the programs and places in the festival. After examining the contents and situation of the research objects, the degree of subjecthood and authenticity was classified into three sections: good, average, and bad.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progress and situation of the festivals for the last three years, it was confirmed that Jeju myth festivals have a few problems respectively. Nevertheless, it came to the conclusion that it is possible for local members to form a consensus through myth festivals and to form identity based on them.

In order to achieve that possibility, we should get out of the short-term perspective to evaluate the festivals. Even if it takes time, it is necessary for the local people to think about the problems and the situations, to discuss and to improve it together. After such effort and progress, Jeju myth will be able to breathe properly in the festivals. And it will be able to fully share its value and meaning as a precious cultural heritage.



Keywords : regional identity, Jeju Myth Festival, subjecthood, authenticity